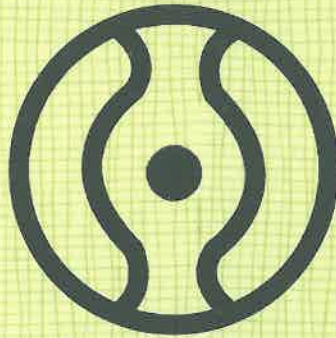


제 119주년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기념행사
기념식 / 학술발표회

동학,
한류의 큰 바람으로 서라!



- ☐ 일시 : 포덕 154년(2013) 6월 2일(일) 오전 11시
- ☐ 장소 :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
- ☐ 주최 : 동학혁명기념관, 천도교교수회
- ☐ 후원 : 천도교중앙총부, 전라북도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119주년
기념식 및 학술발표회



동학혁명기념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76-1번지(한옥마을 은행나무 앞)
TEL. 063-231-3219 E-mail. lyyking@hanmail.net

제119주년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기념행사
기념식 / 학술발표회

동학, 한류의 큰 바람으로 서라!

일시 : 포덕 154년(2013) 6월 2일(일) 오전 11시

장소 :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

주최 : 동학혁명기념관, 천도교교수회

후원 : 천도교중앙총부, 전라북도



목 차

- 식순	01
- 기념사	03
- 동학행진곡	07
- 동학혁명군. 격문	08
-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08
- 동학혁명군. 4대 강령	09
- 동학혁명군. 12개조 군율	09
- 학술발표1. 「동학에서의 민중이란 무엇인가」	
* 발표자 : 윤석산 / 한양대 명예교수	10
* 토론자 : 이종진 / 전북대 강사	24
- 학술발표2.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 발표자 : 성주현 / 청암대 교수	26
* 토론자 : 조광환 / 동학역사문화연구소 부소장	48
-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창립준비 취지문	52
- 학술발표회. 토론. 메모	55

식 순

1부 : 제 119주년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기념식

사회(천도교전주교구장 윤철현)

- 내빈소개
- 개식
- 국민의례
- 청수봉전
- 심고
- 주문3회병송

- 주최대표 인사
 - * 동학혁명기념관장 이운영
 - * 천도교교수회 회장 정의필

- 기념사
 - * 천도교중앙총부 총무원장 김인환(교령 기념사대독)

- 축사, 격려사
 - *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박성일(도지사 축사대독)
 - * 전주시장 송하진
 - * 국회의원 김성주
 - * 국회의원 이상직

- 동학행진곡
- 동학혁명군 격문, 12개조 폐정개혁안
 -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하연호
- 동학혁명군 4대강령, 12개조 군율
 - *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회장 최은석

- 심고
- 폐식

2부 :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119주년기념 학술발표회

사회 : 이윤영(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장)

㉠. 학술발표1. 「동학에서의 민중이란 무엇인가」

* 발표자 : 윤석산 / 한양대명예교수

* 토론자 : 이종진 / 전북대강사

㉡. 학술발표2.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 발표자 : 성주현 / 청암대교수

* 토론자 : 조광환 / 동학역사문화연구소 부소장

3부 : 동학혁명 전주지역 유적지 순례

* 기념행사 참가자중 순례희망자,
동학혁명 역사유적지 전주지역 순례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 설립 제18주년 기념 및
제119주년 동학혁명군 전주성 입성 기념행사

동학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향한 새 출발

천도교 교령 박 남 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학혁명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념하는 동학혁명군 전주성 입성 기념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동학혁명의 위업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지주로서 끊임없는 구도의 길을 걸으시고 후천개벽의 실현을 위하여 한 몸을 불살랐던 해월 최시형 신사께서 순도하신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삼가 해월신사님과 동학농민군의 성령들을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전라북도 박성일 부지사님, 송하진 전주시장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님, 국회의원 김성주, 이상직 의원님과 기념식후 학술발표회를 준비해 주신 정의필 천도교교수회 회장님과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실 윤석산, 이종진, 성주현 교수님과 조광환 동학문화역사연구소 부소장님 그리고 원근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덕님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주성 입성과 전주화약의 과정을 통하여 동학혁명은 낡고 부패한 권력과의 전투로서의 승리를 넘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걸고 봉기한 혁명으로서의 승리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동학혁명은 명실상부한 세계사적 혁명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와 삼례의 집회(集會) -- 광화문 복합상소(伏閣上疏) -- 금구·원평·보은 취회(聚會)로 이어지는 일련의 집회를 통해 동학교단 내부의 조직을 결속하면서 혁명의 전열을 정비한 가운데, 마침내 1894년 갑오년 들어 고부와 금산 봉기(蜂起) -- 무장 기포(起包) -- 백산대회(大會) -- 황토현 전승(戰勝) -- 황룡촌 승전(勝戰)으로 혁명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의를 천명하며 확신을 심어 준 동학혁명군들은 마침내 이곳 전주성에 무혈 입성

함으로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혁명의 성지 전주에 세워진 이곳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은 동학혁명군의 후예들인 우리 천도교인들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동학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동학혁명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현창하는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거둔 성과의 총 결산으로서, 동학농민혁명군들의 피와 땀, 한숨과 염원을 모두 담고 있는 성전(聖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동학혁명기념관의 모습은, 20년 전의 우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로서 애증(愛憎)이 교차한다는 점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학혁명 100주년 당시 사회적으로 동학혁명에 대한 열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와 의욕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각종 기념행사 및 기념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뜨거운 의기에 비하여, 우리 교단은 외부의 동학 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들과 충분히 연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동귀일체하여 동학혁명의 큰 뜻을 현창하고 미래화를 향한 기획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년 전 중앙총부의 종의원으로서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을 설립하도록 노력한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넓고 의연한 모습으로 기념관을 건설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 동학혁명의 빛나는 역사를 물려주신 선열들의 거룩한 업적과 희생에 깊은 감사와 추모의 심정을 표하는 이 시간 참으로 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를 비롯한 당시의 젊은 교역자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교단의 새로운 방향과 올바른 위상 정립의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아픈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저에게도 매우 뜻 깊은 자리이며, 오늘의 우리 교단이 심사숙고해야 할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본 기념관의 위상과 규모가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하고자 하는 위대한 동학혁명의 정신과 전주성 입성의 의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해결해야 할 천도교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됨은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울님과 스승님 그리고 순도순국하신 동학혁명군의 성령들께 이 자리에서 다짐컨대, 이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이 반드시 명실상부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여기 계신 여러분 또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천도교 대회에서 교령으로서의 직임(職任)을 부여받은 이래 기회가 닿을 때마다 동학혁명의 의의를 계승하고 현창하는 일은 우리 교단만의 힘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동학혁명 기념사업 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종교계, 일반 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와 더불어, 나아가 동북아 전역으로 그 권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11일 황토현 전승 기념식 전(紀念式典)에서는 동학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라는 화두를 집약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국화는 지역화를 내포하는 동학혁명의 공간적 확장으로 보국안민의 기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세계화는 동학혁명의 개혁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선포하는 사상적 확장으로 포덕천하를 실현하는 것이며, 미래화는 동학과 천도교의 연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재적 의의를 실천하는 동학혁명의 시간적 확장으로 광제창생 지상천국의 후천세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전담하여 추진해 나갈 교단의 기관으로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의 준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지금의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20년 전의 “동학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를 중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대장정의 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 제안하고 선언하는 모든 일들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차원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동학, 시대의 바람이 되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 민중들의 “바람(願)”을 받아 안고, 낡은 시대적 군상(群像/群象)과 만진(萬塵)을 날려 버리는 “개혁의 바람(風)”이 되어, 동학의 들판을 가르던 사발통문과 같이, “바람처럼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니 이 또한 가벼운 약속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미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전국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물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러한 의지들을 설명하고 연대를 제의하였던 바 모든 분들이 흔쾌히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천도교 동학혁명 기념사업의 대장정은 내년으로 다가온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학혁명 기념사업은 단순히 120년 전을 회고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동학혁명의 정신을 오롯이 전개하는 개혁운동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월신사가 되고, 동학군 통령 의암 손병희가 되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되어 이 시대의 민중들과 더불어 후천개벽, 생명평화 세상을 향한 힘찬 전진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동학혁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뼈아픈 상처가 되고 있는 분단의 현실을 종식하고 민족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사업 또한 이 시대 동학혁명 운동의 일환이기에,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이 손잡고 주인된 마음으로 전 국민과 더불어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곳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 2층 전시실에는 해월신사의 최후 모습을 형상화한 전신 동상과 아울러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됨에 따라 규명된 3,6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의 명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과 그 이름들 하나하나 영원이 잊을 수 없는 거룩하고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름들 속에는 아직 포함되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동학농민군들의 이름이 함께 내재되거나,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모셔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무명의 동학혁명군의 이름을 찾아나가야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학농민군의 성령출세를 기원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일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이곳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이 품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꿈과 약속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 기념관이 자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의 중앙총부와 중앙대교당, 경주의 용담성지와 더불어 이곳 동학혁명기념관은 동학 천도교의 뜻을 펼치고 알리는 전초기지과 같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재인식하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의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뜻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의 지혜와 성력을 합하여 동학혁명의 현창과 개벽 세상의 실현을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동학혁명의 의로운 역사를 받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융합하여 계시면서 저희들의 앞길을 소소히 밝혀 주시옵고,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무궁히 향수(享受)하옵소서!!

포덕 154년 6월 2일

동학행진곡

1. 정의와자유-위하여 피흘린위대한역사
2. 우리는새세상위하여 한울이보낸용사-다

1. 창생의힘우리광명은 동학뿐이였었네
2. 나가자우리사명-은 보국안민광제창생

1. 그깃발아래우리는 얼마나힘차게싸웠나
2. 선열이흘린거룩한 그피를우리는 반-자

후렴

들 어라개 벽의 깃 발-을 용감한우 리- 용 사-야

빛나는우리역사를 등에-지 고나 가-자

동학혁명군. 격문

우리가 정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큰 곤란과 괴로움에서 건지고 나라를 튼튼한 기반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 욕심이 많고 포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방자하고 난폭한 강적의 무리를 내몰고자 함이라.

양반과 재산이 많고 세력 있는 자들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지방장관, 지방관의 밑에서 굴욕당하고 있는 하급관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동학혁명군. 12개 조 폐정개혁안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동학혁명군, 4대 강령

1.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해치지 않는다.
2.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제하며 백성을 편안히 한다.
3. 왜놈들을 몰아내고 성도(聖道)를 맑게 한다.
4. 군사를 물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귀족을 없앤다.

동학혁명군, 12개 조 군율

1. 행복한 자는 잘 대우한다.
2.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3. 탐욕한 자는 쫓아낸다.
4. 순응하는 자는 존경하여 감복한다.
5. 도망자는 쫓지 않는다.
6. 굶주린 자는 먹을 것을 준다.
7.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없앤다.
8. 가난한 자는 도와준다.
9. 불충(不忠)한 자는 제거한다.
10. 거역하는 자는 알아듣도록 타이른다.
11. 병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불효(不孝)한 자는 죽인다.

학술발표1>

동학에서의 민중이란 무엇인가

윤 석 산 (한양대 명예교수)

1

‘민중’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당시 민주화운동과 함께, 이들 운동에 적극 앞서는 사람들, 또는 이들에게 이론적인 제공을 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민중’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도 하였다.

본래 ‘민중(民衆)’이라는 말의 어의는 ‘많은 사람’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어의를 지나 ‘민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또 쓰였기 때문에 그 어의가 지닌 개념 역시 특수하게 되었다.

민중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용어로 ‘대중’을 들 수가 있다. 이 ‘대중’이라는 용어와 ‘민중’을 비교하므로, 흔히 ‘민중’이 지닌 어의를 찾아가곤 한다. ‘대중’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며, 서로 분리된 채 조직도 없고, 단합된 행동능력도 없는 집합체를 지칭한다. 그러나 ‘민중’은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잠재력을 지닌 채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지향적인 집합체라는 특징을 가진다.

‘민중’과 유사한 개념어로 우리의 역사상 쓰인 용어로는 ‘호민(豪民)’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홍길동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조선조 문인인 허균(許均, 1567-1618)에 의하여 구체화된 용어이다. 허균은 자신이 쓴 호민론(豪民論)에서 “천하에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백성뿐이다. 백성은 홍수나 화재 또는 호랑이나 표범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데도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업신여기면서 가혹하게 부려먹는데 어째서 그러한가?”라고 전제를 하고, 이어서 이들 백성들을 향민(恒民), 원민(怨民), 호민(豪民)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일컫는 바 향민(恒民)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럿이 함께 즐겨워하고, 늘 보아 오던 것에 익숙하여 그냥 순순하게 법을 받들면서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향민은 두려워할 바가 없

다고 말한다. 또한 원민(怨民)은 모질게 착취당하여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면서도, 집안의 수입과 땅에서 산출되는 것을 다 바쳐서 한없는 요구에 이바지하느라, 혀를 차고 탄식하면서 윗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들 원민들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호민(豪民)은 자신의 자취를 푸줏간 속에 숨기고 몰래 탄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흘려보다가 혹시 그 때에 어떤 큰일이라도 일어나면 자기의 소원을 실행해 보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 호민은 몹시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이들 호민이 나라의 허술한 틈을 엿보고 일의 형편을 이용할 만한 때를 노리다가 팔을 떨치며 발두렁 위에서 한번 소리를 지르게 되면, 원민은 소리만 듣고도 모여들어 모의하지 않고서도 소리를 지르고, 향민도 또한 제 살 길을 찾느라 호미, 고무레, 창, 창자루를 가지고 쫓아가서 무도한 놈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민중과 호민은 어느 의미에서 깨어있는 의식과 함께 부당함에 항거하고 또 역사를 변혁하려는 주체로서 그 동질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면 때문에 1894년 일어난 갑오동학혁명에서의 주체였던 동학군들은 이들 호민, 내지는 민중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음이 그 일반이다. 갑오동학혁명의 주체였던 동학군들은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창조해온 직접적인 주체이면서도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회적 실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학에서의 일컫는 바 깨어있는 사람,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민중'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외양상 '부당함에 항거하고 또 역사를 변혁하려는 주체'로서 동일하나, 이에 이르는 과정이 다르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동학이 지닌 종교적 교의와 그 교의를 실천하려는 모습이 확연하므로, 이들을 다만 '민중'의 개념 속에 가두어 두기보다는 '동학적 민중'으로 나누어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함에는 1894년 일어난 갑오동학혁명의 성격을 다만 반봉건, 반외세라는 민중적 혁명의 차원으로 정립하기보다는, 1894년 갑오동학혁명은 동학적 세계관이 담긴, 동학적 세계관을 펼쳐가기 위한 개혁운동이었음을 밝히기 위한 시론적 의미를 지닌다.

2

대부분의 종교 사상이 그러하듯이 동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삶의 질서와 함께 새로운 세상의 건설이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삶, 나

아가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고자 함을 동학에서는 ‘다시 개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동학이 창명된 궁극적인 동인 역시 ‘다시 개벽’을 통한 새로운 삶의 틀,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 동학을 이은 천도교에서는 그 종교적 목적을 포덕천하, 보국안민,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개벽’을 통한 지상천국 건설이 바로 천도교의 종교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상 동학에서는 그 창명에서부터 이와 같은 ‘다시 개벽’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삶을 이끌어 온 질서를 청산하고, ‘다시 개벽’이라는 ‘새로운 삶의 틀’을 짜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동학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학은 인류의 삶, 인류의 역사를 우주적 차원인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천명(天命)과 천리(天理)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인류의 삶을 청산하고, 우주적 질서에 부합하는 후천의 삶인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열망이 동학이라는 가르침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동학을 창명한 수운(水雲, 최제우, 1824-1864) 선생은 인류가 지내온 선천의 역사를, ‘비나 이슬을 내리게 하여 만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곧 한울님의 은덕(恩德)인지도 모르던 우부우민(愚夫愚民)의 시대’, ‘오제(五帝)와 같은 성인이 나온 이후 성인이 다스리던 성인치리(聖人治理)의 시대’, 그리고 ‘천리와 천명을 따르지 않는 최근의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시대’로 나누고 있다.¹⁾ 즉 인류는 문명 이전 원시시대를 거쳐 인류의 문명을 일으킨 성인들의 등장과 함께 문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성은 타락하고, 인류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수운 선생은 보고 있다. 동학이 창명되던 19세기 중엽은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로, 사람들은 천리와 천명을 따르지 않고, 각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은 금수(禽獸)와 다름없으며,²⁾ 그러므로 살아갈 방향조차 모르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세태가 만연한 시대라고,³⁾ 수운 선생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순천리의 시대를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동학이 창명된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운 선생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선천의 시대가 물러가고 이

1) 『東經大全』·「布德文」,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券而 以定天道之常然 …(중략)… 故乃成君子 至於至聖 豈不欽歎哉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矣」

2) 『龍潭遺詞』·「夢中老少問答歌」, 「禽獸 같은 세상사람 얼푼이 알아내네」

3) 『東經大全』·「布德文」,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之所向矣」

내 후천의 시대가 온다는, 거대한 우주적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 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 가르침을 편다.

‘거대한 차원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우주적 비밀’을 수운 선생은 ‘시운(時運)’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수운 선생은 경신년(1860年) 4월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통하여 거대한 차원의 변화인 ‘시운’이라는 우주적 비밀을 꿰뚫어 본 것이다.⁴⁾ 그러므로 불순천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내 시운에 의하여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수운 선생은 믿게 된다. 따라서 수운 선생은 이내 다가올 새로운 시운에 의한 우주적 차원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천리와 천명을 따르고, 한울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주의 질서인 천도를 따라 살지 않음을 한탄하게 된다.⁵⁾

동학은 바로 이와 같이 시운이 돌아왔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며, 동시에 시운에 의하여 도래할 후천의 시대에, ‘다시 개벽’을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끌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점이 바로 동학이 이 세상에 창명된 궁극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수운 선생의 도통(道統)을 이어 동학의 2세 교주가 된 해월(海月, 최시형, 1827-1898) 선생은 「개벽운수(開闢運數)」라는 법설을 통해 ‘다시 개벽’을 강조하였고, 해월 선생으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아 동학의 3세 교주가 된 의암(義菴, 손병희, 1861-1922) 선생 역시 「인여물개벽설(人與物開闢說)」의 법설을 통해 ‘다시 개벽’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 개벽’을 이룰 수 있는 주체를 ‘동학적인 민중’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개벽을 이룩할 수 있는 동학적 민중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3

먼저 ‘다시 개벽’을 이룰 수 있는 주체인 ‘동학적 민중’은 시천주를 통해 마음의 개벽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운 선생이 경신년 4월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통해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4) ‘우주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운’을 수운이 꿰뚫어본 그 根據로 庚申年 4月 宗教體驗을 통해 수운과 한울님이라는 神과의 만남을 들 수가 있다. 수운은 한울님으로부터 “開闢 後 五萬年에 네가 또한 첩이로다. 나도 또한 開闢 以後 勞而無功 하다가서 너를 만나 成功하니 나도 成功 너도 得意”(龍潭歌) 라는 말을 듣게 된다. 또한 “萬古 없는 無極大道 이 世上에 創建하니 이도 또한 時運이라.”(勸學歌), 또한 한울님으로부터 “착한 運數 돌려놓고 胞胎之數 定해 내어”(教訓歌) 등의 말을 들었다. 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 수운이 한울님이라는 宇宙的 存在와의 만남을 통해 宇宙的 秘密인 새로운 時運에의 到來를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5) 『東經大全』「布德文」,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 聞我斯言則 入則心非 出則巷議 不順道德 甚可畏也’

가르침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심법(心法)이다.⁶⁾ 오랜 수련을 통해 수운 선생은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한울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라는 가르침을 받게 된다. 나아가 이 ‘오심즉여심’의 심법을 통해 한울님이 다른 초월된 먼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 모셔져 있으며, 동시에 우주에 편만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몸에 한울님을 모셨다.’는 ‘시천주(侍天主)’를 중심 사상으로 삼게 된다.

시천주에 관하여 수운 선생은 당신이 쓴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詞)』에 각기 한 번씩 명기하고 있다. 『용담유사』·「교훈가(敎訓歌)」중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 하단 말가.”라고 시천주를 풀어서 말하고 있다. 즉 한울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몸에 모셔져 있다. 그러니 올바른 도(道)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 허공(虛空)에 빌 것이 아니라, ‘너’라는 생명체가 어떻게 화해 나왔는가를 궁구하라는⁷⁾ 말씀이 된다. 또한 『동경대전』에서는 「주문(呪文)」과 이 주문을 해의하는 자리에서 시천주를 거론하고 있다. 주문을 수운 선생은 ‘한울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⁸⁾이라고 말한다. 한울님을 지극히 위한다는 말은 다름 아닌 한울님의 뜻, 곧 천리에 따라 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문’은 천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동학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와 같이 나의 본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또 한울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인 주문의 핵심어가 되는 ‘시천주’는 ‘모심’이며 동시에 깨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동학적 민중’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그 첫 번째 길이기도 하다.

수운 선생은 주문 스물한 자 중 스무 자를 해의하는 자리에서 시천주 역시 해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천주’ 중에서 ‘천(天)’은 해의를 하지 않고,⁹⁾ 한울님을 모신다는 뜻의 ‘시(侍)’와 ‘님’이라는 의미의 ‘주(主)’ 만을 해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이 ‘시(侍)’라는 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시(侍)라는 것은 안으로는 신령(神靈)한 영(靈)이 있음을 느끼며(內有神靈),

6) 『東經大全』·「論學文」, ‘身多戰寒 外有接靈之氣 內有降話之敎 視之不見 聽之不聞 修心正氣而問曰 何爲若然也 曰吾心卽汝心也’

7) 『東經大全』·「後八節」, ‘不知道之所在 我爲我而非他’

8) 『東經大全』·「論學文」, ‘曰呪文之意 何也 曰至爲天主之字故 以呪言之’

9) 水雲은 呪文 스무 한 자 中 스무 자 모두를 解義하고, 오직 ‘天’에 關해서만 그 解義를 留保하고 있다. 왜 水雲은 이 ‘天’ 한 글자에 關하여 解義를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事實은 매우 多樣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 이에 對한 論議는 此後로 미루고자 한다.

밖으로는 신비한 기운과 응화를 이루어(外有氣化), 온 세상의 사람이 각기 깨달아 옮기지 아니하는 것(各知不移)이다.”¹⁰⁾

이와 같은 ‘시’에 대한 수운 선생 스스로의 해의를, 해월 선생은 법설에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안에 신령이 있다 함(內有神靈)은 처음 태어날 때의 어린아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함(外有氣化)은 포태될 때에 이치와 기운이 바탕에 응하여 체(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¹¹⁾

수운 선생이 펼친 해의를 바탕으로 하여 해월 선생이 부연 해석한 의미를 고찰해 보면, ‘내유신령(內有神靈)’이란 안으로는 처음 태어난 아기의 마음과 같은 가장 순수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요, 또 ‘외유기화(外有氣化)’란 어머니의 자궁에서 처음 생명체로 형성될 때, 한울님의 이치와 기운에 의하여 그 형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해월 선생의 부연해석을 바탕으로 본다면, ‘시(侍)’란 다름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에서 처음 형성되는 아기의 마음, 곧 한울님의 마음이며, 이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는 우주의 크나 큰 생명으로 있던 무형(無形)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을 받아 유형(有形)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시’란 무형의 생명이 유형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며, 동시에 이 생명체가 우주의 기운과 접하게 되는 신비함을 체득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안과 밖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는 ‘신령한 한울님의 영과 한울님의 기운’에 의하여 무형의 생명이 유형의 생명체로 바뀌는 순간, 곧 포태의 순간을 해월 선생은 ‘시’라고 풀이하고 있다.

수운 선생이 제기하고 있는 시천주에 의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울님의 신령한 영과 기운에 의하여 포태가 된 것이며, 동시에 한울님의 신령한 영과 기운으로 한울님을 모시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습관에 의한 삶을 사는 동안 이 신령한 영과 기운을 사람들은 상실하거나 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한울님 모시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다. 그렇지만 오랜 종교적인 수련을 통하여 이 상실했던 ‘한울님의 영과 기운’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본원적으로 한울님 모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포태의 순간 받게 되는 신령한 한

10) 『東經大全』·「論學文」,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11) 『海月神師 法說』·「靈符 呪文」, ‘內有神靈者 落地初 赤子之心也 外有氣化者 胞胎時 理氣應質而成體也’

을님의 영과 기운을 다시 회복함을 수운 선생은 ‘시천주’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동학은 바로 사람들 모두가 본원적으로 ‘한울님 모심’을 깨달으므로 해서, 시천주에 이르는 것, 그러므로 한울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에 그 첫 번째 의미를 둔 종교이다.

수운 선생과 해월 선생의 해의를 바탕으로 볼 때 ‘안으로 느껴지는 신비한 영(內有神靈)’이란 다름 아닌 한울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나’의 본원적 주체가 된다. 또 밖으로 느껴지는 ‘신비한 기운과의 융화를 이룬다는 것(外有氣化)’은 곧 나의 기운이 한울님의 기운과 서로 융화일치를 이루므로 한울님의 무궁한 기운을 회복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으로 느껴지는 신비한 영과 밖으로 느껴지는 신비한 기운은 별개의 작용이나 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동시에 느껴지는 작용이기도 하다.¹²⁾ 즉 ‘시(侍)’란 다름 아닌 안으로는 신령이 자리하게 되고, 밖으로는 이 신령과의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달리 표현하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신령’은 ‘기화’를 통하여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화’로 이룩되는 ‘신령의 활동’을 각기 옮기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수운 선생은 ‘시’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가 바로 ‘한울님 모심’의 시천주가 지닌 본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천주’란 신령이라는 한울님 마음을 지니고, 기화라는 한울님의 실천적 삶을 각지 불이(各知不移)를 통하여 옮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한울님 마음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내유신령(內有神靈)’이란 자신이 곧 한울님인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길이요, 한울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융화일체를 이룬다는 ‘외유기화(外有氣化)’란 자신이 한울님, 곧 무궁한 우주와 서로 같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즉 시천주의 ‘모심’이란 안과 밖으로 한울님 마음과 기운을 동시에 회복하고 융화일체를 이루므로, 자신이 단순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우주라는 전체와 동일한 기운으로 관통되어 있음을 체득하므로, 자신이 단순한 개체로서의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의 커다란 생명체임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함이 곧 수운 선생이 『용담유사』에서 노래한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¹³⁾로서의 ‘무궁한 존재’, 곧 한울사람으로의 거듭 태어남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거듭 태어난 ‘한울사람’을 수운 선생은 지상신선(地上神仙), 또는 군

12) 東學에서는 ‘靈’과 外有氣化의 ‘氣’가 窮極의로는 같은 것이라고 본다.(『義菴聖師 法說』·『講論經義』, ‘呪文註譯 內有神靈 論學章 外有接靈之氣 爲教 則靈與氣 本非兩端 都是一氣也’)

13) 『용담유사』·『흥비가』

자사람이라고 이름 짓고 있다.¹⁴⁾ 반상(班常)의 신분적인 구분이나 귀천의 구별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군자도 되고 신선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수운 선생이 지닌 생각이다. 나아가 종래 지니고 있던 일반적인 ‘군자’의 개념을 세속화시켜 개개인의 내면에 주체화시키고 있으며,¹⁵⁾ 또한 도교의 현실을 떠난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선상(神仙像)에 역동성을 부여한 ‘지상신선’을 내세움으로 정신적인 혁신¹⁶⁾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자사람이나 지상신선은 궁극적으로 ‘무궁한 나’를 깨달은 한울님의 덕을 체득한 사람이며, 나아가 타락한 시대적 위기 속에서 가장 요구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기도 하다.¹⁷⁾

마음의 개혁을 통하여 ‘한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민중적 각성을 지닌 존재로 거듭 태어남을 의미한다. 즉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이 우주라는 커다란 생명과 동일한 영, 동일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므로, 지금까지의 타락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인 ‘다시 개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동학적 민중’으로 거듭 태어남을 의미한다.

4

마음의 개혁을 통하여 동학적 민중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동학적 민중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룩하고자 하는가. 동학적 민중의 삶을 해월 선생의 가르침인 ‘사인여천(事人如天)’, ‘삼경(三敬)’, ‘이천식천(以天食天)’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는 해월 선생에 이르러 ‘사람을 한울님같이 섬기라는’ 뜻의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표명된다.¹⁸⁾ 그런가 하면, 해월 선생은 이 사인여천의 가르침을 매우 실천적으로 편다. 다음의 해월 법설에서 이와 같은 면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청주를 지나 때 서택순의 집에서 그 며느리가 베를 짜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서군에게 물어 말하기를 “저 소리는 누가 베를 짜는 소리이냐?” 하니, 서군이 대답하기를, “저의 며느리가 베를 짜는 소리입니다.” 라고 답을 하여, 내가 다시 “진실로 며느리가 베를 짜는 것이냐?” 하니, 서군이 대

14) 『龍潭遺詞』·『教訓歌』, ‘시킨 대로 施行해서 차차차차 가르치면 無窮造化 다 던지고 布德天下할 것이니 次第道法 그뿐일세 法을 定코 글을 지어 入道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君子되어 無爲而化될 것이니 地上神仙 네 아 니나.’

15) 申一澈, 「崔水雲 先生의 歷史意識」, (『韓國思想叢書』 IV, 泰光文化社, 1980), p.41 參照.

16) 文明淑, 「東學·生命·人間」, (『東學學報』 1集, 2000.), p.154.

17) 拙稿, 「龍潭遺詞에 나타난 水雲의 人間觀」, (『韓國學論集』 第5集,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4)

18) 『海月神師 法說』·『待人接物』, ‘人是天 事人如天’

답을 하지 못하였다. 어찌 유독 서군뿐이겠는가. 도가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고 말하지 말고, 한울님께서 오셨다고 말을 하라.¹⁹⁾

해월 선생은 이렇듯 제자의 집을 방문을 하여 배를 짜는 며느리를 일컬어 ‘한울님이 배를 짠다.’는 가르침을 펴므로, 사인여천의 실천을 가르쳤다. 이러한 해월 선생의 가르침에는, 비록 서택순이라는 사람이 가정적으로는 어른이며, 또 시아버지이지만, 그 며느리를 대할 때에는 이 며느리를 한울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또한 해월 선생은 당시 상대적으로 하대 받던 여성, 특히 가정의 며느리의 문제에 이어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소홀히 되던 어린아이의 문제까지 사인여천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도가의 부인은 경솔하게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면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게 된다.²⁰⁾

이와 같은 해월 선생의 가르침에는 여성도 어린이도 또 남성이라도 어른도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본원적인 존중이 된다.

해월 선생의 가르침은 다름 아닌 스승인 수운 선생의 시천주를 이은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천주는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인 면에서 모두 우주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서로 같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 가르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시아버지라고 해도 그 며느리를 본원적인 면에서는 한울님 같이 섬겨야 하며, 어린아이를 때리면 이는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요, 따라서 한울님의 기운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월 선생의 가르침인 사인여천에는 실상 ‘섬김을 받는 존재가 한울님같이 존귀하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한울님같이 섬길 수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이 깃들여 있다. 다음과 같은 가르침의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욕을 참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스스로 자기 잘못을 責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하고,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 … 〈중략〉 … 무릇 때와 일에 임하여 우, 묵, 놀 세 글자를 용으로 삼아야 한다. … 〈중략〉 … 사람을 대할 때에 언제나 어린이 같이 하라. 항상 꽃이

19) 『海月神師 法說』·「待人接物」, ‘余過清州 徐柁淳家 聞其子婦織布之聲 問徐君曰 彼誰之織布之聲耶 徐君 對曰 生之子婦織布 真是君之子婦織布耶 徐君不卞吾言矣 何獨徐君耶 道家人來 勿人來言 天主降臨言’

20) 『海月神師 法說』·「待人接物」, 道家婦人 輕勿打兒 打兒 卽打天矣 天厭氣傷

피는 듯이 얼굴을 가지면 가히 사람을 융화하고 덕을 이루는데 들어 가니라.²¹⁾

즉 해월 선생의 가르침인 ‘우(愚), 묵(默), 눌(訥) 세 글자를 용(用)²²⁾으로 하는 사인여천의 ‘섬김’은 시천주가 지닌 ‘모심’의 사회적 실천이 된다. 따라서 이 사인여천의 ‘섬김’에는 오늘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

해월 선생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일마다 한울님이요, 사물마다 한울님이라는’ 사사천(事事天), 물물천(物物天)²³⁾의 가르침을 통해,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사상(三敬思想)²⁴⁾으로 전개된다. 해월 선생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자연과 소통하고, 신과 소통하는 위대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²⁵⁾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만유 역시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우주는 모두 커다란 하나의 생명체라는 ‘우주공동체’로서의 그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해월 선생의 사상은 중심과 부분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사유를 뛰어넘어 지배와 억압을 근간으로 하는 위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해월 선생은 ‘한울로서 한울을 먹는다.’는 「이천식천(以天食天)」의 법설을 통해 ‘상생(相生)과 조화(調和)’의 가르침을 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먹히고 먹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해월은 그 인식을 달리하여,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생과 상생’, 이를 통해 이룩하는 ‘균형과 조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천식천」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 항상 말하기를 “물건마다 한울이요 일마다 한울이라고” 하였다. 만약 이 이치를 옳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물건이 다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 아님이 없을지니,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이치에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인심의 편견에 치우쳐서 보는 말이요, 만일 한울

21) 『海月神師 法說』·「待人接物」, ‘對人之時 忍辱寬恕 自責內省爲主 非人勿直 … 〈中略〉 … 凡臨機處事 以愚默訥三字爲用 … 〈中略〉 … 對人之時 如小兒樣 常如花開之形 可以入於人和成德也’

22) ‘愚’는 ‘愚直’을 意味한다. 故로 愚直의 反對 概念은 ‘巧詐’이다. ‘默’의 反對 概念은 ‘巧言’이 된다. 또 ‘訥’의 反對 概念은 ‘衞言’이다. 狡猾한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고, 또 꾸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려하고, 스스로 自慢하며 또 眩亂한 말로 相對를 어지럽히는 것은 窮極的으로 相對를 속이는 行爲요, 한울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相對에 대한 올바른 ‘섬김’은 愚와 默과 訥에서 나오게 된다고 본 것이다.

23) 『海月神師 法說』·「以天食天」

24) 『海月神師 法說』·「三敬」

25) 『海月神師 法說』·「三敬」, ‘敬天은 決斷코 虛空을 向하여 上帝를 恭敬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恭敬함이 곧 敬天의 道를 바르게 아는 길이니, 吾心不敬이 卽天地不敬이라 함은 이를 이름이다. 사람은 敬天함으로써 自己의 永生을 알게 될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人吾同胞 物吾同胞의 全的理를 깨달을 것이요.’

전체로 본다면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동질이 된 者는 서로 도움으로써 서로 기화를 이루게 하고, 이질이 된 자는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으로써 서로 기화를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한울은 한쪽 편에서 동질적 기화로 종속을 기르게 하고, 다른 한쪽 편에서 이질적 기화로써 종속과 종속의 서로 연결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합하여 말하면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다는 것(이천식천)은 곧 한울의 기화작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²⁶⁾

해월 선생은 스승인 수운 선생으로부터 시천주의 가르침을 받고, 깊은 수련을 통해 우주적 본체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주가 한 기운 덩어리, 또는 한 기운 울타리’²⁷⁾임을 깊이 터득하게 되고, ‘우주에 가득 찬 혼원한 한울님 기운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발자국이라도 감히 경솔하게 내딛으면 안 된다.’²⁸⁾고 설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월 선생은 「이천식천」의 법설을 통해 이와 같은 우주를 전일적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로 볼 것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크나큰 한 생명체인 우주는 한편으로는 ‘동질적 기화(同質的 氣化)’로 종속을 기르고 있는 것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질적 기화(異質的 氣化)’로 서로의 연결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따라서 동식물이 먹이를 위하여 다른 동식물을 먹는 것은 약육강식에 의한 살육과 다툼이 아니라, 한울이 한울을 먹으므로 일으키는 기화작용(氣化作用), 곧 비를 내리고 햇살을 보내어 만유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작용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 해월 선생의 생각이다. 즉 해월 선생은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다.’는 이질적 기화와 한울로써 한울을 도와준다는 동질적 기화를 제시하므로 만유가 지닌 생명의 공생과 순환을²⁹⁾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해월 선생이 제시하는 「이천식천」의 가르침은 모든 이원적인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데에 그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우주적 조화와 균형이 곧 생명의 본질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는 「대인접물(待人接物)」의 법설이나,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다는 「이천식천(以天食天)」, 또 만유를 모두 공경해야 한다는 「삼경(三敬)」 등의 법설은 결국 한 뿌리를 두고 있다 하겠다. 「이천식천」이나 「삼

26) 『海月神師 法說』·「以天食天」

27) 『海月神師 法說』·「天地人·鬼神·陰陽」, 『天地 一氣塊也 … (중략) … 天地 一氣圓也』

28) 『海月神師 法說』·「誠·敬·信」, 『宇宙間 充滿者 都是渾元之一氣也 一步足 不敢輕舉』

29) 金芝河, 『金芝河 全集 1』, (實踐文學社, 2003.) p. 158

경」 등의 법설이 만유와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이 된다면, 「대인접물」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된다.

이와 같이 상대에 대한 섬김을 통해 만유의 공생과 순환, 나아가 상생과 조화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동학이 지향하는 궁극적 삶이며, 동시에 ‘다시 개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길이기도 하다.

즉 동학적 민중의 삶이란, 다름 아닌 이와 같이 상대에 대한 섬김을 통하여 만유의 공생과 순환, 나아가 상생과 조화의 삶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에 그 본의가 있다고 하겠다.

5

19세기 우리나라가 겪고 있던 상황이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안으로는 부패한 관료들로 인하여 착취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밖으로는 서구적 모더니티에 의한 침략의 위협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억압과 지배, 그리고 침략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던 때였다.

이와 같은 시대에 수운 선생이 ‘동학’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수운 선생이 동학을 세상에 퍼기 시작한 신유년(1861년) 6월부터 용담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마치 장터마냥 붐볐다고 한다. 이러한 광경이 경전과 교사에 표현되어 있다.³⁰⁾

그런가 하면, 수운 선생이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에 체포가 되어 처형을 당한 이후 관의 지목을 피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산간 마을을 숨어 다니며 해월 선생은 동학의 교단을 재건한다. 처음 수운 선생이 처형을 당했을 때에는 같은 동학교도들이 길에서 만나면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고 한다.³¹⁾ 그 만큼 관의 지목이 삼엄했었다. 이렇듯 삼엄한 지목과 탄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해월 선생은 흩어진 교도들을 다시 모으고, 또 새롭게 포덕을 하여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삼남(三南)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등 많은 지역에 수십만을 헤아리는 교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용담을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고, 또 관의 지목과 탄압 속에서도 수십만을 헤아리는 교도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30) 『東經大全』「修德文」, 「開門納客 其數其然 肆筵設法 其味其如」, 또한 『용담유사』 중 「교훈가」에서도 가르침을 얻고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용담으로 찾아오는 광경을, “그럭저럭 지내다가 통개중문(洞開重門) 하여두고 오는 사람 가르치니 불승감당(不勝堪當) 되었더라. 현인군자(賢人君子) 모여들어 명명기덕(明明其德) 하여내니 성운성덕(盛運盛德) 분명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수사」에서도, “불과 일년 지낸 후에 원처근처(遠處近處) 어진 선비 풍운같이 모아드니 낙중우락(樂中又樂) 아닐런가.”라고 노래하고 있다.

31) 『道源記書』, 「自甲子以後 所爲道人者 或死或存 或棄閉無相通 永爲絕跡 而彼此相見 如見仇讐 自不能相從也」

의미하는가. 이는 곧 동학의 가르침이 이들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의 희망과 함께 자신이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해월 선생이 처음 수운 선생을 만나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면 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날 성현은 뜻이 특별히 남다른 표준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한번 대선생(大先生)을 뵈옵고 마음공부를 한 뒤부터는, 비로소 별다른 사람이 아니요 다만 마음을 정하고 정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인 줄 알았노라.³²⁾

대선생인 수운 선생을 만나 마음공부를 한 이후 해월 선생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해 왔던 ‘봉건적 인간에의 관념’을 벗어버린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성현(聖賢)은 성현의 자질을, 우부(愚夫)는 우부의 자질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 되고 우부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을 정하느냐, 정하지 못하느냐에 있음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운 선생과의 만남은 당시 소외받는 하층민의 한 사람인 해월 선생으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빈천의 하층민도 일컫는바 ‘성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성인과 범인의 범주를 구분하여 성인은 다른 차원의 삶 속에서 범인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는 관념을 타파하고, 성인의 차원도 범인의 차원도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찾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마음을 정했느냐, 정하지 못했느냐가 바로 성인과 범인의 차이라는 해월 선생의 법설은 다름 아닌, 시천주의 ‘모심’을 통해 한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을 의미하며, 나아가 상대에 대한 ‘섬김’을 통하여 상생과 조화의 삶을 이룩하는 주체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즉 동학적 민중으로서, 동학의 민중적 삶을 살아가고 또 이룩하고 함을 의미한다.

1894년 갑오동학혁명은 시천주의 모심을 통해 한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 의한, 부조화의 삶을 조화의 삶으로, 불균형의 삶을 균형의 삶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에의 표출이었다고 하겠다. 즉 동학의 민중적 삶의 실천이었다고 하겠다. 부당한 징세와 가혹한 처벌에 항거한 당시의 동학교도들은 궁극에 있어서는 부패한 관리에 의하여 무너지고 흐트러진 부조화의 삶

32) 『해월신사 법설』·「篤工」, ‘余少時自思 上古聖賢 意有別樣異標矣 一見大先生主 心學以後 始知非別異人也 只在心之定不定矣’

을 조화의 삶으로 이루고자 일어났던 것이요, 외세의 침탈로 인하여 무너진 불균형의 삶을 균형의 삶으로 이끌고자 기포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1894년 갑오동학혁명은 상층계층의 억압에 대항하여 하층계층이 일어난, 일컫는바 민중의 투쟁, 민중 혁명만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삶을 이루고자 했던 동학적 세계관이 시대적 현실, 나아가 역사적 현실과 부딪치며 일어났던 동학의 개혁운동이었다고 하겠다.

동학은 19세기라는 격변의 시대에, 보국안민(輔國安民)³³⁾의 기치를 세우고 안으로는 봉건의 억압을 조화의 삶으로, 서구적 모더니티에 의한 외세의 침탈을 균형의 삶으로 이끌고자 온몸을 던져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봉건의 고루함과 외세의 야합에 의하여 실패를 하게 되고, 이 실패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제 식민이라는, 36년간의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33) '輔國安民'은 '국가를 보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불균형의 삶을 균형의 삶으로, 부조화의 삶을 조화의 삶으로 이끄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輔'라는 글자가 지닌 의미는 '수레바퀴의 덧방나무'라는 뜻으로, 수레의 양쪽 가장자리에 대는 나무를 뜻한다. 이 덧방나무와 바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덧방나무가 있으므로 수레가 바르게 균형을 이루며 굴러갈 수가 있다. 따라서 '輔國安民'은 단순히 나라를 보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국민이 안정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동학에서의 민중이란 무엇인가” 토론문

이 종 진 (전북대강사)

119년 전 동학혁명군의 전주입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한 학술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윤석산교수님 원고를 부족함이 많은 제가 토론자로 나서게 되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속학이 전공이라는 명분 하나로 토론자가 되었는데 교수님의 원고를 접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도교 교인이면서도 아직 공부와 수련이 부족하여 교수님의 원고에 다른 생각이나 관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리하여 반론이나 문제제기는 없고요, 저의 생각과 고민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민중의 개념을 설정하면서 민중은 대중과 비교하여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잠재력을 지닌 채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지향적인 집합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중을 허균의 호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깨어있는 의식과 부당함에 항거하고 또 역사를 변혁하려는 주체로서 그 동질성으로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갑오동학혁명의 성격을 반봉건, 반외세라는 민중적 혁명의 차원을 넘어, 동학적 세계관이 담긴, 동학적 세계관을 펼쳐나가기 위한 개혁운동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밝히는데 “다시개벽”을 수운선생과 해월선생의 동학적 민중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시천주”, “사인여천”, 삼경, 이천식천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학적 민중의 삶을 상대에 대한 섬김을 통하여 만유의 공생과 순환, 나아가 상생과 조화의 삶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그 본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894년 갑오동학혁명은 시천주의 모심을 통한 한울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한, 부조화의 삶을 조화의 삶으로, 불균형의 삶을 균형의 삶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출이며 동학의 민중적 삶의 실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동학에서 민중은 항상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19세기에는 갑오동학혁명을, 일제 강점기 때에는 3.1독립운동을 이끌며, 현실의 모순과 부딪치며 불균형의 삶을 균형의 삶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8.15광복 이후 그리고 독재시대를 지나 오늘에 이르는 시대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국의 산하가 일제의 침략에 유린당하고 있을 때,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총을 겨누고 있을 때, 독재의 폭정에 국민이 고문당하며 고통 받고 있을 때 천도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조국은 신음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어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학이 보여주었던 동학적 세계관 즉 포덕천하, 보국안민, 광제창생, 지상천국건설의 꿈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경전에 분명하게 문자화 되어 천도교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순과 불균형을 개혁하고 다시 개혁하려는 노력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모순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천도교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의 동학, 천도교 모습이 아닌 현재의 천도교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천도교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술발표2>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성 주 현 (청암대 연구교수)

1. 머리말
2. 전북지역의 동학 조직과 동학혁명
3. 갑진개화운동과 천도교의 조직
4. 전북지역 3.1운동과 천도교의 역할
5. 맺음말

1. 머리말

전북은 호남의 관문으로 동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학을 창명한 수운 최제우는 1861년 6월 포교를 한 후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동학을 이단으로 탄압하였고, 수운 최제우는 경주를 떠나 호남지방으로 피신하여 남원에 이르렀다. 이는 영남지역에서 호남지역으로 동학이 포교되는 첫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포교지가 전북지역이었다. 이후 전북지역은 동학의 중심지로 부각되었으며, 동학혁명의 진원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동학혁명 이후 동학은 한동안 쇠퇴하였지만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계기로 교세를 다시 확장하는 한편 근대문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은 1905년 12월 1일 천도교로 근대적 종교의 틀을 마련하면서 전북지역에도 敎區 즉 지방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3.1운동 등 민족운동의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의 동학과 천도교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할 정도였다.³⁴⁾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회에서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에 관한 연구는 1건도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전북지역은 고부기포를 비롯하여 무장기포, 백산대회 등 초기 동학혁명의 주무대였다. 특히 고부기포는 동학혁명의 첫 기포지로서 반봉건 반외세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이어 무장기포와 백산대회를 거치면서 동학군은 ‘혁명군’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한편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둠으로써 동학혁명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후 승승장구한 동학혁명군은 장성, 영광 등 전남지역을 거쳐 전북지역의 수부라고 할 수 있는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은 동학혁명군은 전북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민정을 단행하면서 패정을 개혁해 나갔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경북공을 점령하는 등 조선침략을 노골화하자 호남지역 동학군은 전북 삼례에서 다시 기포하였다. 이후 동학혁명군은 논산에서 호서지역과 경기지역 동학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공주를 점령하고자 하였지만 우금치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에 의해 패하고 말았다.

동학혁명 이후 고향을 등지고 피신과 은신 등으로 생활하던 동학교도들은 1890년대 후반들어 동학에 대한 탄압이 수그러들자 고향으로 돌아와 비밀리에 동학조직을 재건하였다. 1904년 ‘흑의단발’이라는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한 동학1905년 12월 1일 천도교로 대고천하를 한 후 근대적 종교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1905년 전개한 동학의 근대개화운동은 전북지역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1906년 2월 천도교중앙총부가 설치된 후 각 지역에는 지방조직으로서 교구를 설립하였는데, 전북지역도 전주교구를 비롯하여 각지에 지방교구가 설립되었다. 이들 천도교 지방조직은 3.1운동 당시 지방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북지역의 동학과 동학혁명을 간략히 정리한 후 전북지역의 천도교와 이를 토대로 전개한 3.1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전북지역이 너무 광범위한 영역이라 누락된 것은 추후 논문을 보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혀드리고자 한다.

2. 전북지역의 동학 조직과 동학혁명

아시다시피 동학은 1860년 4월 5일 창명되었지만 포교는 1년 후인 1861년 6월 이후였다. 경주를 중심으로 동학에 입도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고 “원근사방에 풍문이 날로 퍼지니 도고일척에 마고 일장이라”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장되자 조선 정부는 성리학의 통치이념에 반한다고 하여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수는

최제우는 “내 스스로 피하여써 시운에 순응하리라”하고 남쪽으로 방향을 정한 후 낙동강 웅천, 의성, 성주를 거쳐 전북지역의 남원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호남일대에 동학이 포교되기 시작하였다. 남원에서 과세를 한 수운 최제우는 1862년 3월 경주로 돌아갔다.³⁵⁾

그런데 「천도교전주종리원」에 의하면 남원에 머물던 수운 최제우는 전주에 들러 “物態風俗을 周覽하신 후 布德을 爲始하시다”³⁶⁾라고 하여 전주를 들러 본 후 포교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당시 호남의 수부라고 할 수 있는 전주를 비롯하여 전북일대에 포교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동학의 포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훗날 전북지역이 동학혁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동학 교단적 차원에서 전북일대에 본격적인 포교가 된 것은 1884년경이었다. 이해 10월 동학의 최고책임자인 해월 최시형은 전북의 익산 사자암에서 49일기도를 한 바 있었다. 이로부터 전북 일대에 동학은 조직화되었던 것이다.³⁷⁾ 이에 앞서 1883년 익산의 박치경이 동학에 입도³⁸⁾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880년대 초에 이미 전북 일대에 동학이 널리 포교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88년 1월에는 해월 최시형이 전주 서문 밖 박공일의 집에서 전북일대의 동학 두목들과 함께 기도식을 가진 바 있었다.³⁹⁾ 이어 제자 10여 명과 함께 삼례 도인 이몽로의 집에서 유숙하였다.⁴⁰⁾ 이처럼 전북지역의 동학 교세는 해월 최시형이 전주를 순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1891년 2월 해월 최시형이 공주 신평리에 머물 때는 김영조, 김낙철, 김낙봉, 김낙삼, 남계천, 손화중, 김덕명, 김개남 등 전북지역의 주요 동학지도자들이 후원하였다.⁴¹⁾ 그리고 이해 5월에는 태인군 김낙삼과 부안군 김낙철의 집에서 육임첩을 발행하였다.⁴²⁾ 특히 이 시기 전북지역을 우도와 좌도로 나누어 편의장을 둘 정도로 동학 교세가 급성장하였다.⁴³⁾

이처럼 전북 일대에서 동학의 교세가 급성장하자 조선정부의 지목과 탄압

35)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1편, 천도교중앙종리원, 1937, 28~32쪽.

36) 「천도교전주종리원」, 『천도교회월보』 168, 1924.9, 30쪽.

37)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61쪽.

38) 「여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203, 1927.11, 31쪽.

39) 「천도교전주군종리원」, 30쪽.

40)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39쪽; 오지영 『동학사』, 66쪽.

41) 오지영, 『동학사』, 68~69쪽.

42)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43쪽.

43) 당시 호남일대는 우도편의장 윤상오, 좌도편의장 남계천이 각각 맡고 있었다. 윤상오는 양반가 출신이었고, 남계천은 천민 출신이었다. 때문에 좌도의 김낙삼이 남계천을 따르지 않자 해월 최시형은 남계천을 호남좌우를 통합하여 편의장으로 남계천을 임명하였다.

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동학도인들은 동학의 신앙자유를 위한 교조신원운동을 삼례에서 전개하였다. 1892년 5월 공주에서 개최한 교조신원운동에 이어 이해 11월 전북 삼례에서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삼례교조신원운동에서는 전북 일대의 많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⁴⁴⁾ 이어 1983년 1월 광화문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때 전주에서는 서영도, 허내원, 이병춘, 최상진, 최대봉, 구창근, 유재봉, 박공일, 이몽로, 이상순, 장경화, 조석걸, 이창돈 등 수백 명이 참여하였다.⁴⁵⁾ 익산에서도 박치경, 최난선 등이 교인을 인솔하여 삼례교조신원운동과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이어 척왜양창의운동에도 참가하였다.⁴⁶⁾ 이처럼 전북 일대의 동학교인들이 척왜양창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包조직을 할 때 전북지역에서는 남계천은 전주대접주, 김덕명은 금구대접주, 손화중은 정읍대접주, 김낙철은 부안대접주, 김개남은 태인대접주, 김낙삼은 시산대접주, 김석윤은 부풍대접주, 김방서는 봉성대접주, 장경화는 옥구대접주, 서영도는 완산대접주, 박치경은 고산대접주로 각각 임명받았다.⁴⁷⁾ 이들 20명의 대접주 중 11명이 전북지역 출신으로, 당시 전북지역의 동학 교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참여한 동학지도자들은 1894년 1월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전개되자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894년 1월 들어 동학에 대한 지목이 극심해지자 관내 接의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부에서 전봉준이 기포하자 전주 관내 두령인 서영도, 유재봉, 최대봉, 임상순 등 수십 명이 고부의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과 서로 연락을 하는 한편 함께 기포하였다.⁴⁸⁾ 이어 3월 고부 백산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도 참여하였다. 익산지역 동학지도자들도 백산대회에 참여하였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백산대회에 집결한 지역과 지도자는 <표1>과 같다.

44) 「천도교전주총리원」, 30쪽.

45) 「천도교전주총리원」, 30쪽.

46) 「여산총리원연혁」, 31쪽

47) 오지영, 『동학사』, 83~84쪽. 한편 『천도교창건사』에는 남계천이 호남대접주로 기록하고 있다.

48) 「천도교전주총리원」, 30쪽.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고부기포는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전봉준이 고부기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주지역의 동학지도자들과 상호 호응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표1>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지도급 인물⁴⁹⁾

지역	지도급 인물
대장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강경중 송경찬 고영숙 김봉년 김사업 김증득 유한필 손여옥 차치구
교장	홍낙관 홍계관 손여옥
무장	송문수 송진호 장투일 곽창옥
영광	최시철 오정운
고부	정일서 김도삼 홍경삼 정종혁 송대화 송주옥 정덕원 정윤집 전통팔 홍광표 주관일 주문상 윤상홍
정읍	임정혁
태인	김하영 김한솔 김연구 김지풍 최영찬
금구	송태섭 조원집 이동근 유공만 유한솔 최광찬 김응화 김윤옥 김언배 김가경
김제	황경삼 하영운 한경선 어치권 입애옥 한진열 허성의
옥구	허진
만경	진우벌
무안	배규인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윤교 노영학 노윤하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춘경 이동근 김응문
임실	최승우 최유하 입덕필 최우필 조석걸 이만화 김병옥 문길현 한영태 이용학 이병용 광사회 허선 박경부 한군정
남원	김흥기 이기동 한진학 김태옥 김종학 이기면 이창수 김우치 김연호 김시찬 박선주 정동훈 이교춘
순창	이용술 양희일 오통호 김치성 방진교 최기환 지동섭 오두선
진안	이사명 전화삼 김택선
장수	김숙여 김흥투 황학주
부주	이응백 윤치갈 성순
부안	신명언 백어구
장흥	이방언 이인환 강봉수
담양	남주송 김중화 이경섭 황정옥 윤용수 김희안
창평	백학 유형로
장성	김주환 기수선 기동도 박진동 강계중 강서중
능주	문장렬 조종순
광주	강대열 박성동 김우현
나주	오중문 김유
보성	문장형 이치의
영암	신성 신란 최영기
강진	김병태 남도균 윤시환 장의운 송병수 윤세현
흥양	유희도 구기서 송년호
해남	김도일 김춘두
곡성	조석하 조재영 강일수 김현기
구례	임춘봉
순천	박낙석
전주	최대봉 강문숙 강수한 송창렬 박기준 오두병

49) 오지영, 『동학사』, 113-114쪽.

〈표 1〉에 의하면 대장소를 제외한 34개 지역 중 17지역이 전북지역이며, 162명의 지도자급 중 전북지역 출신이 99명에 이르고 있다. 이 역시 백산대회의 중심 세력은 호남 중에서도 전북지역임을 알 수 있다.

백산에 집격한 전북지역 동학군은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전투에 참여 승전하였으며, 이후 전주성 점령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각지역에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일본군의 경북공 점령 이후에는 삼례에서 재기포를 하고 논산을 거쳐 공주 우금치 전투까지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의 동학군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에 관병으로 고부 백산, 장성 황룡에 접전하고 양차 전승 후 전주 함성에 직입하여 4월 28일에 관병 대장 홍재기와 개전하여 흑승 흑패에 양진 사상이 如山如海하고 일변 접전 일변 방화에 西門外가 일시공허한지라. 5월 3일에 관병 대장 홍재기와 관찰사 김문현이 講和어늘 乃即相和 후에 因爲各郡에 入倡義師하여 사무를 개설함에 본군 서영도 고덕문 강수환 송덕인 유달수 송창렬 박봉렬 이창돈 구창근 민영일 김기성 장영식 안승환 박영준 이봉안 김성초 민영진 등이 종건이 되어 대세를 爭할 새 10월에 京兵으로 又爲開戰함에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諸領이 전주부에 대전타가 공주로 행진하여 與官兵으로 대전할 제 의암성사와 합진하여 논산 삼례에서 본영이 연차 대전하였었다.⁵⁰⁾

갑오에 고부에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諸領과 본군 최난선과 합세하여 관군과 대전하여 승하고 전주를 함락한 바, 時 관찰사 김문현과 대장 홍재기가 화친하기를 청함에 화친하다. 집강소를 각군에 배치하여 사무를 행할 새, 본군 대접주 박치경씨 외 최난선, 고병엽, 박호년, 오응원, 이창운, 김창수, 최창권, 조학원 등이 미륵리에 집강소를 設하다. 時에 본군 부사 김원숙과 박영진, 김운초, 김경삼, 윤일병, 오덕순, 이연하, 박원식, 오준명 등이 마산집강소에서 사무를 집행하며 대세를 관하다가 11월에 京兵으로부터 공주 소개 논산 양처에서 교전하다가 본군 부사 겸 대접주 김원숙이가 전봉준과 충돌이 되어 전씨 手에 김씨가 慘殉이 되며 또 경병이 觸處殺風이 猛勤하여 흑 포살 흑 화공하던 지목은 형언키 난하였다⁵¹⁾

50) 「천도교전주종리원」, 30쪽.

51) 「여산종리원연혁」, 31쪽.

전주성 점령 이후 정부와 동학군이 관민상화의 화약을 체결하자, 전주에서는 서영도 고덕문 강수환 송덕인 유달수 송창렬 박봉렬 이창돈 구창근 민영일 김기성 장영식 안승환 박영준 이봉안 김성초 민영진 등이 중심이 되어 집강소를 설치하는 한편 폐정을 개혁하였다. 10월 재기포하여 전봉준 등과 함께 공주에서 손병희가 이끄는 호서 및 경기지역 동학군과 합세하여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였다.

한편 익산지역은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 박치경, 최난선, 고병엽, 박호년, 오응원, 이창운, 김창수, 최창권, 조학원 등이 미륵리에 그리고 김원숙과 박영진, 김운초, 김경삼, 윤일병, 오덕순, 이연하, 박원식, 오준명 등은 마산리에 각각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재기포 후에는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익산의 대접주 김원숙이 전봉준과 대립 끝에 참형을 당하였다.

즉 전주와 익산지역의 동학군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9월 총기포 이후에는 동학군의 주력부대와 함께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였다. 전주와 익산 이외의 전북지역에서도 동학혁명에 참여한 지역은 <표 2>와 같다.

<표 2> 동학혁명 당시 전북지역에서 기포한 지역⁵²⁾

지역	주요 지도자
정읍	정종혁 차치구 송대화 송주옥 정덕원 정윤집 전동팔 홍광표
태인	김개남, 최영찬, 김지풍, 김한술
만경	진우범
금구	김덕명 김사엽 김봉득 유한필 김윤오 송양배 김응화 조원집 이동근 김방서 장경화 홍경삼
고창	오하영 임천서
김제	김봉연 이치권 조익재 황경삼 하영운 한경선
무장	송문수 강경중 정백현
임실	최승우 최유하 임덕필 조석희 박경무
남원	김흥기 김낙기 이기동 이기면 최진학 전태옥 강종실 김종학 김종황 이규순 장남선 조동섭 이규순 장남선 조동섭
순창	양해일 오동호 전치성 방진교 최기환 지동섭 오두선
진안	전사명 전화삼 김택선
무주	윤민
부안	신명언 김낙철 김낙봉 김석윤
익산	오경도 고제정 김문영 오지영 정용근 정영조 소식두 강영달 이조병
합열	고덕삼

52) <표 2>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전주종리원』, 『여산종리원연혁』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장수	황학주 김학종 김숙녀 김흥두
여산	최난선 김갑동 박병돈 김현순 조희일 박치경 고병엽, 박호년, 오응원, 이창운, 김창수, 최창권, 조학원 김원숙 박영진 김운초 김경삼 윤일병 오덕순 이연하 박원식 오준명
고산	박준관 김현문 권인춘 김택영 김낙언 최영민 신현기 이은재 서인훈
진산	조경중 최사문 최공우
금산	박철능
전주	서영도 임상순 고문선 이봉춘 허내천 박봉렬 최대봉 송덕인 강문숙 강수환 이창돈 구창근 김춘옥 송창렬 고덕문 강수환 유달수 민영일 김기성 장영식 안승환 박영준 이봉안 김성초 민영진
임피	유원술 김상철 진관삼 홍경식
20개 지역	149명

〈표 2〉에 의하면, 동학혁명 당시 전북지역에서는 19개 지역에서 145명의 주요지도자들이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 호남지역 중 전남지역은 15개 지역 68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동학혁명의 중심세력은 전북지역이었을 알 수 있다.

한편 동학혁명이 일본군의 개입으로 막을 내리자 정부와 일본군, 그리고 지역의 유생과 보부상으로 구성된 민보군은 동학 조직을 뿌리 뽑고자하였다.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동학교인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 전주지역의 경우 “다수의 교인들이 관병에게 무수 피살되어 餘教人이 尊接無路 師門의 開路가 無期터니”⁵³⁾라고 하였으며, 익산지역은 “官軍 指目이 大熾하여 최난선 박원식 김운초 오응원 諸領이 본군 주왕동에서 被捉하여 捉殺당하였고, 박영진 김현구 고병엽 고충권 이창운 諸領은 풍설맹한 중 ○山巖之間에서 隱身圖生 하였으며 勤勤保命 중”⁵⁴⁾이라고 하였듯이, 동학혁명 이후 동학교인들이 참살을 당하거나 고향을 등지고 깊은 산중에 은신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주와 익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였다.⁵⁵⁾

그러나 정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지역에서도 안정을 찾게 되자 동학의 조직들은 부활되었다. 전주지역은 1895년 후반 들어 이병춘이 해월 최시형을 만나면서 동학 교단과 연결되었고, 이어 김숙녀, 구창근, 민영진, 고문덕과 협의하여 포교를 재개함에 따라 교세가 점차 회복되었다.⁵⁶⁾ 익산지

53) 「천도교전주종리원」, 30쪽.

54) 「여산종리원연혁」, 31쪽.

55) 고부지역의 경우 사발통문에 서명하였던 송대화는 동학혁명이 끝날 무렵 전봉준위 권유로 나주를 거쳐 전북 옥구 임피로 피신하였다가 이곳에서 머슴으로 10년간 생활하였다.(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62~64쪽). 임실의 경우 동학혁명에 참가하였다가 생존한 동학군은 회문산으로 피신, 6년 동안 은신생활을 하였다.(성주현,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198쪽)

역은 동학혁명 이후 동학교단과 두절되었지만 1896년 전주대접주 고덕문와 익산지역의 이창운, 박영진, 고병엽, 김현구, 고총권, 유인화, 김해생, 정대원, 최창권, 박공일 등이 재회하면서 동학 조직이 다시 부활되었다.⁵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여전히 정부로부터 탄압의 대상이었다. 1896년과 1897년 들어 동학 조직이 점차 회복되자 관찰사가 각군에 훈령을 내려 교인들을 피체하는 한편 진위영 감옥에 수감되었다. 또한 1898년 해월 최시형의 순도 이후 더욱 탄압이 심해지자 동학 교단과의 연결조차 두절될 정도였다. 더욱이 1890년에도 보부상과 관군의 연합으로 동학조직은 사실상 와해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해 말경부터 동학 조직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⁵⁸⁾ 특히 1900년 의암 손병희가 전북 남원성 남쪽 수정리에서 설법식을 가짐으로써 전북지역의 동학 조직은 크게 확장되었다.⁵⁹⁾

동학혁명 이후 황폐화되었던 전북지역 동학은 전주와 익산에서의 동학 조직이 부활되었던 것처럼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학혁명 이전보다는 못하였지만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하였다.

3. 갑진개화운동과 천도교의 조직

동학혁명 이후 한 동안 위축되었던 동학 조직이 회복되자 동학은 ‘흑의단발’의 근대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갑진개화운동이라고 한다. 동학교단은 1904년 8월 말일까지 각 지역에 진보회를 조직하도록 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전북지역 동학조직은 진보회를 조직하는 한편 흑의단발을 하면서 근대문명개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럼 전북지역에서 전개되었던 갑진개화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전북지역의 진보회는 ‘處處가 東學’이라 할 정도로 각 지역에서 조직되었다. 우선 전주군에서 이병춘, 장남선, 구창근, 조석걸, 박화생, 나백일, 이영하, 민영일, 김해생, 이상우, 민영진, 이유상, 최성령, 송진수, 박선명, 김봉득, 김봉년, 정용근, 김중화, 최승우, 최시백, 김화일, 박봉의, 남주송, 강종보, 차경석, 이경섭, 김연구, 윤상홍, 송대화, 최유하, 이기동, 이용준, 김득천, 김영록, 김영원, 한 채연, 문길현 등 전북지역 주요지도자들의 독려로 수만 명의 교인들이 흑의단발을 하고 강경에서 진보회를 개최하고 전주로 복귀하였다.⁶⁰⁾

56) 「천도교전주총리원」, 30-31쪽.

57) 「여산총리원연혁」, 31쪽.

58) 「천도교전주총리원」, 31쪽.

59) 성주현,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190쪽.

그리고 이들은 각지 지역으로 돌아가 진보회를 조직하는 한편 ‘흑의단발’로 근대문명운동을 주도하였다.

함열군은 10월 12일경 황등장터에 수천여 명이 모여 개회를 하고⁶¹⁾ 회장에 김봉득, 부회장에 차경석 안승환을 각각 추대하였으며,⁶²⁾ 태인군에서도 10월 16일경 3백여 명이 모여 개회하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⁶³⁾ 특히 함열군 황등시장에 모였던 동학교도들은 강경 은진포로 이동하여 이곳에서도 개회를 하고 이 지역 동학교인과 함께 개회를 하였다.⁶⁴⁾ 당시 이들의 집회에는 크게 쓴 ‘전북대접주’라는 태극장에 ‘영담연원 검약포덕’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지대도’라고 적어 동학교인임을 밝히고 있다.⁶⁵⁾

익산군은 12월 14일경 역시 수천 명이 모여 개회하였는데 ‘민심이 대단 소요하여 환산지경’이라고 할 정도였다.⁶⁶⁾ 즉 이병춘 장남선 구창근 이상우 이유상 이영하 박화생 김의태 강봉수 박낙양 김창수 등은 황등시장에서,⁶⁷⁾ 박선명 김봉득 최승우 최유하 김련구 김화일 김희원 최시백 최순봉 등은 태인 용두시장에서, 정용근 김중화 남주송 강종실 이경섭 이용준 차경석 박봉의 김영록 등은 태인 군내에서 각각 수만 명을 이끌고 개회하였다. 개회 후에는 금구 원평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김봉년 윤상홍 이안준 송대화 안승환 송종철 전장인 이환혁 백낙인 등은 회원 수만 명을 모아 단발한 후 강경포로 이동하였다.⁶⁸⁾ 익산군의 진보회원은 군내에서만 개회하지 않고 인근 지역 회원들을 모아 개회를 지도하였다.

이밖에도 지역은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각지의 진보회 조직에 대한 전북 관찰사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⁶⁹⁾ 이러한 사례는 「천도교남원군종리원연혁」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언론이나 관의 의해서 파악은 되지는 않았지만 운봉에도 진보회가 조직되었는데, 운봉진보회는 金性在를 중심으로 단발 개회한 바 있다.⁷⁰⁾

이와 같이 근대문명운동을 전개한 동학 조직은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탄압을 받았고 많은 교인들이 희생되었다.⁷¹⁾ 특히 전주에서는 관찰사 이경직과

60) 「천도교전주종리원」, 31쪽.

61) 『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13일; 10월 14일 및 『황성신문』 1904년 10월 14일자.

62) 「천도교전주종리원」, 31면.

63) 『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18일자.

64) 『황성신문』 1904년 10월 20일자.

65) 『황성신문』 1904년 10월 20일자.

66) 『대한매일신보』 1904년 12월 15일자.

67) 「여산종리원연혁」, 31쪽.

68) 「익산종리원연혁」, 33면.

69) 『대한매일신보』 1904년 12월 10일; 12월 12일자.

70) 「宗理院史附東學史」, 남원군종리원, 1924.

71)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2일 및 11월 28일자.

진위대장 백남신, 전주군수 권식상 등이 진보회 조직을 방해하였다.⁷²⁾ 익산에서는 관군의 난행으로 탄압이 심하였다.⁷³⁾

참고로 일본공사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진보회 조직 상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전북지역 진보회 조직 상황⁷⁴⁾

지역	회장	부회장	평의원			회원수
			士人	農人	商人	
전주 삼례	유화인	김일수	1	3	1	1,300
김제군	이영하	조병하	1	3	1	940
임피군	이통운	최희덕		4	2	760
익산군	김해생	이규헌	1	3	1	850
여산군	장남선	민영일	1	4		8,500
함열군	이병춘	구창근	2	2		1,400
태인군(용두리)	박재덕	김봉득		4	1	2,600
태인군(안계)	황봉기	오준용	1	4	2	530
금구군	이일환	정대형	1	3	1	2,900
임실군	박준신	임래규	2	1	2	2,400
계			10	28	11	22,180

갑진개화운동 이후 동학교단은 1905년 12월 1일을 기해 그동안 ‘동학’이라고 불리던 교단의 명칭을 ‘천도교’로 전환하였다. 이를 천도교에서는 ‘대고천하’라고 한다. 이어 1906년 2월 서울에 천도교중앙총부를 설립하고 지방에 지방조직으로서 ‘교구’를 조직하였다. 1936년 3월 전국적으로 72개 대교구가 설립되었는데, 전북지역에는 제20대교구, 제30대교구, 제34대교구, 제38대교구 등 4개의 대교구가 설립되었다. 제20대교구장은 이병춘, 제30대교구는 정경수, 제34대교구장은 구창근, 제38대교구장은 이일환이 각각 선임되었다.⁷⁵⁾ 당시 대교구는 연원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은 확인할 수 없지만 진보회 조직과 관련해 추적해보면 제20대교구는 함열군, 제30대교구는 전주군, 제34대교구는 함열군, 제38대교구는 금구군이였다.

1906년 3월에 설립된 대교구는 이해 12월에 23개 지역별로 새롭게 정비되었는데, 전북지역에는 남원대교구, 전주대교구, 익산대교구, 태인대교구 등 4개의 대교구로 재조정되었다. 그리고 대교구장에는 전주대교구장에 이병춘,

72) 「천도교전주총리원」, 31쪽.

73) 「여산총리원연혁」, 31쪽.

74) 성주현 편저, 『갑진개화운동자료집』, 천도교중앙총부, 2005, 137-140쪽.

75) 이동초 편저, 『천도교회 종령존안』, 모시는사람들, 205, 38-40쪽.

대리에 민식, 익산대교구장에 오지영, 대리 변치운, 태인대교구장에 임래규, 대리 김영식이 각각 선임되었다. 그리고 남원대교구장은 미정이었다.⁷⁶⁾

1906년 12월에 설립된 23개 대교구제는 1914년에 이르러 크게 변경되는데 전국적으로 36개의 대교구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전북지역은 오히려 4개의 대교구가 2개의 대교구로 축소되었다. 즉 전주, 남원, 익산, 태인 대교구에서 전주와 익산대교구만 남게 되었다. 전북지역 대교구의 관할과 소속교구 및 교구장은 <표 4>와 같다.

<표 4> 1914년 전북지역 천도교 조직 현황

대교구	소속교구	교구장
전주대교구	전주군교구	김봉년
	진안군교구	형극민
	장수군교구	임두홍
	남원군교구	박진경
	임실군교구	김영원
	순창군교구	지동섭
	김제군 금구교구	김중화
	전주군 고산교구	김현구
익산대교구	익산군교구	장남선
	논산군 은진교구	
	논산군 연산교구	
	익산군 여산교구	정대원
	익산군 함열교구	민영순
	옥구군교구	최순봉
	김제군교구	공문학
	김제군 만경교구	전길호
	정읍군 고부교구	송대화
	정읍군 태인교구	김연구
	부여군교구	
무소속	고창군 무장교구	김두평

<표 4>에 의하면 전주대교구의 관할교구는 전주군교구, 진안군교구, 장수군교구, 남원군교구, 임실군교구, 순창군교구, 금구교구, 고산교구 등 8개 교구

76) 이동초 편저, 『천도교회 종령존안』, 104쪽.

이며, 익산대교구는 익산군교구, 여산교구, 함열교구, 옥구군교구, 김제군교구, 만경교구, 고부교구, 태인교구 등 8개 교구와 충남의 연산교구, 은진교구, 부여군교구 등 11개 교구를 관장하였다. 무소속으로는 무장교구가 있는데, 전북지역에는 모두 17개의 천도교 지방 교구가 조직되었다. 당시 전북지역 교구를 정하면서 흥덕교구와 고창교구를 무장교구에, 부안교구는 고부교구에, 운봉교구는 남원교구에 각각 통폐합하였다.⁷⁷⁾ 이로 볼 때 전북지역 천도교 조직은 1906년 21개에서 1914년에는 17개로 축소되었고, 교세가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12년 중앙총부에서 교인 자제들을 위해 천도교의 신앙심과 신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전국에 교리강습소를 설치하였는데 전북지역에는 진안교구에 3개, 전주교구 임실교구에 각각 2개, 그리고 고부교구 김제교구 남원교구 담양교구, 만경교구, 부안교구, 순찬교구, 장수교구, 태인교구 관내에 각각 1개 등 모두 16개의 교리강습소가 설립되었다.⁷⁸⁾

전북지역 교구 중 전주군교구의 조직 당시부터 1910년대까지 주요 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군교구는 1906년 5월에 조직되었다. 중앙총부에서 퇴회신교 즉 일진회에서 탈회하고 천도교 신앙만 하라는 종령이 내려오자 일진회에서 탈회하는 한편 전주군 槩斤洞에 전주군교구를 설립하였다. 이듬해 1907년 봄 김봉득, 정용근, 김봉년 등이 중심이 되어 서문 안 梧棟洞에 수십 간의 가옥을 매입하여 교구를 이전하였다. 1908년 4월 의암 손병희가 남순할 때 전주 君子亭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은 교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해 1905년 10월 청년 교육을 위해 설립하였던 진보학교⁷⁹⁾를 창동학교로 개명하는 한편 중앙총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또한 이해 교구를 북문 안 松斤洞으로 이전하였다.

중앙총부에서 지방교구의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선발할 때 전주군교구는 1909년에는 심명용을, 1912년에는 김재근을 각각 파견하여 교리강습을 마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총부가 지방교역자를 선발 우이동 봉황각에서 49일 연성기도회를 할 때 1912년 봄에는 이병춘 구창근, 가을에는 김봉년, 1913년에는 박선명 민영일 안승환 등을 선발 각각 참가하였으며, 1913년에는 관내 교역자 수십 명이 위봉산 태조암에서 49일 기도를 마치기도 하였다.⁸⁰⁾ 특히 1912년부터 시행된 49일 연성기도회는 ‘이신환성’이라는 교설을 통해 민족은

77) 이동초 편저, 『천도교회 종령집안』, 202-210쪽.

78) <표> 작성-월보참조하여

79) 진보학교는 김봉득, 김봉년, 정용근의 발기와 전주군 관내 교인의 후원으로 북문 안에 설립되었다.

80) 『천도교전주총리원』, 32쪽.

동을 위한 정신교육이었는데, 연성기도회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역마다 그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4. 전북지역 3.1운동과 천도교의 역할

아시다시피 3.1운동은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으며,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일제 측의 기록에 의하면 전국에서 1,214회의 만세시위가 있었으며, 전북지역은 39회였다. 이는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만세시위가 활발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⁸¹⁾ 전북지역에서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은 종교, 학생 등 조직적인 활동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천도교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북지역의 만세운동 역시 여타 지역보다 그 규모나 수효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였다.

전북지역 3.1운동 중 천도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은 전주교구, 익산교구, 임실교구, 남원교구, 순창교구, 정읍교구, 함열교구, 옥구교구, 김제교구, 부안교구 등 10개 교구이다. 이들 교구는 기독교는 지역 종교들과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본절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천도교과 관련된 3.1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지역의 3.1운동은 인종익⁸²⁾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의 사무원이었던 인종익은 보성사 사장 이종일로부터 독립선언서 2천매를 받아 전북지역과 충청도 지역으로 배포하였다. 2월 28일 오전 7시 독립선언서 2천매를 인수한 인종익은 이날 오전 11시 남대문역을 출발 대전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 3월 1일 정오경 전주교구에 도착하였다. 당시 전주교구에 있던 금융원 김진옥에게 독립선언서 1,600~1,700매를 전달하고 이를 전주교구 관할 교구에게 나누어 전달하고, 일반인에게도 배포하라고 지시하였다.⁸³⁾ 김진옥은 이를 당시 교구장 김봉년에게 보고한 후 교구회의를 통해 관내 교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기로 하는 한편 전주 시내에 배포기로 하였다.

이에 전주교구는 김진옥과 배상근으로 하여금 임실교구를 비롯하여 익산교구, 함열교구 등 관할 교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토록 하고,⁸⁴⁾ 시내에도 독립

81) 지역별로 전개한 만세시위는 서울과 경기도가 288회, 황해 137회, 경남이 121회, 평북이 114회, 평남이 85회, 충남과 함남이 각각 75회, 강원이 74회, 경북이 62회, 충북이 56회, 전남과 함북이 각각 44회였다.

82) 인종익은 1894년 동학혁명 때 입교하여 박덕철의 휘하에서 동학혁명에 참가하였다. 이후

83) 『독립운동사 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 1972, 22쪽; 「인종의 및 신문조사」,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3(三一運動 III)』,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84)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1971, 495쪽; 「인종의 신문조사」.

선언서를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즉 김태경⁸⁵⁾은 유원 등 4명의 교인에게, 민영진은 서호순⁸⁶⁾과 유선태⁸⁷⁾에게, 유원⁸⁸⁾은 다시 이달수 유명선 양영화에게 각각 독립선언서 4,5매를 전달하고 이를 시내에 배포토록 하였다.⁸⁹⁾ 이외에도 민영진 조성덕 김성문 김영홍 등도 독립선언서를 시내에 배포하였다.⁹⁰⁾ 그리고 기독교 측에도 연락하여 만세시위를 함께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교와 기독교는 만세시위를 위해 각자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천도교에서 전주 시내에 배포한 독립선언서가 발견되자 일제는 관련 인물을 추적하는 한편 천도교와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요 인물을 예비 검속하여 만세시위를 사전에 막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주에서는 전주의 첫 3.1운동은 3월 12일에 전개되었다. 이날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에서 경영하는 학교 학생 1백여 명이 밤 11시까지 4,5차례에 걸쳐 만세시위를 지속하였다.⁹¹⁾ 이어 3월 13일에도 대규모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날 오후 1시 천도교인, 기독교인, 신흥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제2공립보통학교, 대화정, 우편국 등으로 행진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시위로 10여 명이 예비검속 당하였는데, 천도교인으로는 배상근이 포함되었다.⁹²⁾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도 완산정 김제가도에서 본정까지 만세시위를 이어 갔는데, 천도교인도 참가하였다. 이외에도 3월 23일에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지만 천도교인이 참여하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익산군의 만세시위⁹³⁾는 3월 10일, 18일, 28일, 30일, 4월 4일과 5일, 8일 등 7차례 전개되었다. 이중 천도교와 관련된 만세시위는 3월 10일, 4월 4일과 5일 등 세 차례였다. 익산의 3.1운동 역시 천도교의 독립선언서 전달을 통해 준비되었다. 전주교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인종익은 이원규의 안내로 이중열 익산교구장⁹⁴⁾의 집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⁹⁵⁾ 한

85) 김태경은 독립선언서 배포로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86) 서호순은 독립선언서 배포로 징역 8월을 언도받았다.

87) 유선태는 독립선언서 배포로 광주지법 전주지청에서는 징역 1년을 언도받았지만 대구복심법원에서는 공소 기각되었다.

88) 유원은 독립선언서 배포로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89) 『독립운동사 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 1479~1481쪽.

90) 「인종의 신문조사」.

91) 『매일신보』 1919년 3월 16일자. 그런데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59, 901쪽에는 4월 22일로 기록하고 있다.

92)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495~497쪽

93) 익산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주명준의 「익산의 3.1운동」의 도움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두며, 이 지면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94) 이중열은 1918년 7월경에 익산교구장으로 선임되었다. 『천도교회월보』 96, 1918.8, 49쪽

95) 「인종의 신문조사(제3회)」.

편 3.1운동에 대해 설명하였다.⁹⁶⁾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이종열은 3월 2일 교구에서 만세운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인은 교구장 이종열을 비롯하여 이유상, 정대원, 이형우, 유봉우, 김병호, 민영호, 민영순, 홍영섭, 고충권, 송일성 등이었다. 때마침 찾아온 옥구의 천도교인 노춘만, 신현성, 최공훈, 김종수와 전주 천도교인 최재봉, 서석윤, 이원규 등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영진 전 교구장은 “의암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우리 천도교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다. 우리 모두 한울님께 심고하고 일어나자”고 제의하였고, 모두 이에 찬동하였다. 기독교 측과의 연락은 박영진 전 교구장이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익산군내 연락책을 <표 5>와 같이 선정하였다.⁹⁷⁾

<표 5> 천도교의 익산군내 3.1운동 연락망과 책임자

연락책임자	직책	연락 책임지역
이종열	교구장	황등면, 함열면
이유상	전 전제원	여산면, 용안면
정대원	전 여산교구장	황화면, 팔봉면
유봉우	전제원	오산면, 춘포면
민영진	전 강도원	함라면, 웅포면
홍영섭	전교사	성당면, 낭산면
고충권		망성면, 금마면
신현성		왕궁면, 삼기면

또한 이날 모임에서 만세시위는 수운 최제우의 순도일인 3월 10일에 관내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개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익산군에는 익산교구 외에도 여산교구, 함열교구가 있었는데, 이날 같이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만세시위 방법으로는 산상 햇불시위를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만세시위를 확산시키기로 하였다.⁹⁸⁾

그런데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만세시위를 준비하던 중 이종열, 최재봉, 이원규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검거되는⁹⁹⁾ 한편 박영진과 정대원도 3월 2일 자신이 사는 마을과 여산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혐의로,¹⁰⁰⁾

96) 인종익은 익산교구장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3월 2일 오전 8시 진주로 돌아온 후 청주로 갔다.

97)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517~518쪽.

98) 이병현, 『3.1운동비사』, 909쪽.

99) 『매일신보』 1919년 4월 16일자.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일로 이종열과 최재봉은 징역 8개월, 이원규는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고충권도 여산면 아산리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혐의¹⁰¹⁾로 각각 피검되었다. 이외에도 서성윤,¹⁰²⁾ 이유상,¹⁰³⁾ 송일성,¹⁰⁴⁾ 홍영섭,¹⁰⁵⁾ 유봉우,¹⁰⁶⁾ 이형우¹⁰⁷⁾ 등이 검거되었다. 이로 인해 익산의 3.1운동은 천도교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대로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9시 각처의 산상에서 햇불시위를 전개하였다.¹⁰⁸⁾ 그리고 천도교 창명기념일인 4월 5일을 기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¹⁰⁹⁾ 이에 앞서 함열에서는 4월 4일 강경 일대에서 만세시위를 하자 이에 호응하여 천도교인들은 기독교인과 합세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¹¹⁰⁾

옥구군에서는 4월 5일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3월 2일 익산교구에서 개최한 만세시위 계획 모임에 참가한 바 있는 노춘만은 이유상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옥구교구로 돌아왔다. 독립선언서를 받은 옥구교구는 이날 저녁 비밀리에 회의를 갖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4월 5일 만세시위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노만춘, 최공훈, 신관순, 김종수 등은 이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피검되었다.¹¹¹⁾ 이로 인해 노만춘은 징역 8개월¹¹²⁾, 최공훈은 징역 4개월¹¹³⁾, 신관순은 징역 4개월¹¹⁴⁾을 각각 언도받았다.

김제군은 천도교인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지만 직접 만세시위까지는 전개하지 못하였다. 3월 2일 전주교구에서 독립선언서가 도착하자 교구장 공문학은 김봉빈과 안백균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판결문에 의하면 안백균은 공문학으로부터 독립선언서 3부를 받아 1부는 김봉빈에게, 1부는 김제군 월촌면 수월리에 배포하고, 나머지 1부는 부양면사무소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김봉균은 안백균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를 3월 3일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에 사는 조영필에게 송부하였다. 이로 인해 안백균은 징역 10개월, 김

100) 「박영진 등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년 5월 13일.

101) 「고충권 신문조서」,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7월 4일.

102) 「서성윤 포상자 공적조서」,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서성윤은 이 일로 징역 4개월을 언도받았다.

103) 「이유상 포상자 공적조서」, 공훈전자자료관. 이유상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일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104) 「송일성 포상자 공적조서」, 송일성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일로 징역 4개월을 언도받았다.

105) 「홍영섭 포상자 공적조서」, 홍영섭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일로 징역 4개월을 언도받았다.

106) 「유봉우 포상자 공적조서」, 유봉우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일로 징역 4개월을 언도받았다.

107) 「이형우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년 5월 10일.

108) 이병헌, 『3.1운동비사』, 909쪽.

109)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523쪽.

110) 이병헌, 『3.1운동비사』, 909쪽.

111) 「노춘만 판결문」,

112) 「노만춘 포상자 공적조서」, 노만춘은 3.1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1921년 3월(음)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았다.

113) 「최공훈 포상자 공적조서」, 최공훈은 상해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3년 7개월간 군자금모금운동을 하였다.

114) 「신관순 포상자 공적조서」.

봉균은 징역 8개월을 언도받았다.¹¹⁵⁾

부안군 역시 천도교인들은 독립선언서만 배포하고 만세시위는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부안군 천도교인들은 3월 초 정읍의 천도교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세시위를 준비하는 한편 기독교측 및 학생들과 함께 연합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6일 천도교와 기독교는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3월 30일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하기로 하였다. 천도교인은 관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백산면과 상서면 일대의 교인과 주민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 일본 경찰은 경계를 강화하였으나 이날 오후 8시경 부안을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는 한편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¹¹⁶⁾

남원교구의 3.1운동은 중앙총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준비를 하였다. 1919년 2월 교구장 유태홍, 柳錫(柳宗錫), 최병현 등은 서울에서 손병희를 중심으로 민족지도자들이 독립선언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유태홍은 유석, 최병현과 함께 자신들이 남원과 인근 지역의 책임자가 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태홍은 순창, 장수, 무주, 진안, 광주, 전주 등지의 천도교인들에게 최병현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서울의 동향을 전달하고 서로 협조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준비토록 하였다.¹¹⁷⁾

유태홍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남원에는 1919년 3월 2일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가 도착하였다. 1차적으로 이날 새벽에 임실군 오수면에 거주하는 남원교구 전교사 이기동에게 전달되었고, 이어 덕과면 사율리의 이기원에게 전달되었다. 이기원은 독립선언서 40매를 받아 아침 9시경 교구를 찾아가 교구장 유태홍에게 전달하였다. 유태홍은 곧 바로 유석, 최병현, 김성재 등 교구의 주요인물을 불러 만세운동에 대한 취지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 다음 이날 밤 야음을 이용하여 군내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케 하였다. 이외에도 독립선언서는 황석현-김덕인, 황동주에게 전달되어 남원시내의 법원, 헌병대, 군청 등의 게시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독립선언서가 부착되었다.¹¹⁸⁾ 이어서 유태홍은 이튿날 새벽 평소 연락처로 삼고 있던 남원을 금리 이모씨의 집에서 몇몇 천도교인들과 남원지역의 만세운동을 모의하던 중 남원 헌병대에 피체되었다. 독립선언서 부착사건으로 인해 유태

115) 「김봉균 외 판결문」.

116)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532쪽.

117) 윤영근, 「근대사의 파도를 온몸으로 살아낸 지도자-남원 항일운동의 선각자 유태홍」, 30-31쪽.

118)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537-538쪽; 윤영근·최원식, 『남원항일운동사』, 남원시·한국문인협회 남원지부, 1999, 211-212쪽.

홍은 ‘보안법’에 적용되어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아들 유석과 함께 활동하였던 김성재는 징역 3개월을 각각 언도받았다.¹¹⁹⁾

이처럼 만세운동을 모의하던 유태홍과 천도교인이 검거됨에 따라 남원지역의 3.1운동은 20여 일 후인 3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전개되었다. 다행히 일경의 검거를 모면한 최병현은 3월 23일 남원향교에서 남원교구 주최로 독립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언식에는 천도교인을 비롯하여 유생 등 3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미리 정보를 알고 달려온 헌병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해산되었다.¹²⁰⁾

정읍교구 천도교인의 3.1운동은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소식이 전해지자 기독교측과 함께 준비하였다. 정읍군 읍내 유지 이익겸, 박환규는 일찍부터 천도교와 기독교 인사들과 교를 해오던 중 3월 23일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읍내 시기리 김희근의 집에서 천도교, 기독교 측 인사와 함께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다. 천도교측에서는 관내 교인들의 집을 순회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만세시위 계획이 일경에 탐지되어 3월 22일 밤 헌병대의 급습을 받음에 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¹²¹⁾

순창교구 천도교인의 3.1운동은 3월 20일에 전개되었다. 순창군에서는 3월 10일과 17일 만세시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경의 경계가 극심하였으나 20일에 이르러 평온을 되찾았다. 이를 기회로 천도교인들은 이날 밤 군민 2백여 명과 함께 읍내 뒷산으로 올라가준비한 태극기를 쥘고 햇불을 들어 만세시위를 하였다. 이날 만세시위로 노병화 등 천도교인 10여 명이 검거되었다.¹²²⁾ 또한 순창교구 서기와 금융원으로 활동한 바¹²³⁾ 있는 우치홍은 3.1운동 당시 보성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3월 1일 탑골공원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천도교중앙총부에서 독립선언서 2백매와 『독립신문』 150매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와 만세시위를 준비하던 중 헌병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루었다.¹²⁴⁾

임실교구의 3.1운동은 전주교구로부터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자 교구장 한영태를 비롯하여 강계대, 박관

119) 「유태홍 외 2인 판결문」.

120)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537-543쪽; 윤영근·최원식, 『남원향일운동사』, 남원시·한국문인협회 남원지부, 1999, 242-260쪽.

121) 이병현, 『3.1운동비사』, 906쪽;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511쪽.

122)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513쪽.

123) 『천도교회월보』 52, 1914.11, 39쪽 및 40쪽.

124) 『독립운동사』 3(3.1운동사 하), 514-515쪽; 한상호, 「동암 우동원의 갑오년(1894) 행적」,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6, 3쪽 각주 3).

덕, 한준석, 최양옥, 우성오, 황성진, 김영원, 박성근 등이 모여 만세시위를 모의 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날로 독립선언서를 관내에 배포하기로 하는 한편 그 책임 지역을 <표 6>과 같이 정하였다.

<표 6> 임실교구의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자와 지역

배포지역	배포 책임자
임실	강계대, 문길현
신평	박성언, 염유환
운암	최종기, 최종택, 김교승
강진	안경렬, 송광호
덕치	안경렬, 김귀년, 이모
오천	우성오, 김인택
신덕	정상열, 임재화
하운암	김한익, 김한암, 김한경
둔남, 지사, 삼계	조우삼, 한준석, 박정원

또한 박판덕은 독립선언서 2매를 둔남면 대명리 외 1곳에,¹²⁵⁾ 강계대는 독립선언서 9매를 임실 장터와 학교 앞, 경찰서 앞, 면사무소 앞 등에,¹²⁶⁾ 김영원은 독립선언서 20매를 운암면 입석리, 선거리, 학산리에,¹²⁷⁾ 박성근은 독립선언서를 청웅면사무소 앞에,¹²⁸⁾ 우성오는 독립선언서 18매를 임실면과 오천면에¹²⁹⁾ 각각 배포하거나 부착하였다. 이로 인해 박판덕과 박성근은 징역 10월, 강계대 김영원 우성오는 각각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이와 같이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부착 배포를 계기로 3월 11일 청웅면, 3월 12일 읍내, 3월 15일은 둔남면, 3월 23일은 오수시장, 3월 28일 성수면 등 각지에서 대규모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3월 23일 오수시장의 만세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학생들의 연합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날 만세시위에서 천도교인 박영창과 임한경이 피체되었다.¹³⁰⁾

전북지역 천도교의 3.1운동은 전주교구를 비롯하여 익산교구, 임실교구, 순창교구, 정읍교구, 김제교구, 옥구교구, 부안교구, 남원교구, 함열교구 등 10개 교구에서 참가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와 학생 등과 연합을 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만세시위를 계획하였지만 일경이나 헌병대의 사전 검속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곳도 없지 않았다.

125) 「박판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4월 16일.
 126) 「강계대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4월 4일.
 127) 「김영원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4월 7일.
 128) 「박성근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4월 9일.
 129) 「우성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년 4월 7일.
 130) 이병헌, 『3.1운동비사』, 905쪽

5. 맺음말

이상으로 전북지역의 동학과 갑진개화운동, 그리고 1906년 이후 천도교의 조직과 이를 통해 전개한 3.1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지역의 동학 조직은 동학혁명의 진원지로서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의 중심무대였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은 1862년 수운 최제우가 남원과 전주에 머물면서 동학이 처음으로 포교되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동학의 포교는 180년대 중반이었다. 이후 동학은 전북지역 전체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첫 동학혁명을 알리는 기포를 전개하였고, 이후 전북지역 동학 조직은 동학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황토현전투를 비롯하여 장성 황룡촌전투,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집강소를 설치하는 한편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재기포 후에는 공주 우금치전투에 참여하는 등 동학혁명의 최후까지 활동하였다. 이로 볼 때 전북지역의 동학은 동학혁명의 핵심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전북지역 동학은 근대문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1904년 동학 교단이 흑의단발을 통해 근대문명운동을 전개하자 전북지역의 동학 조직은 관내 각 지역에 진보회를 조직하고 흑의단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셋째, 전북지역 동학은 1905년 12월 1일 근대적 종교의 틀인 천도교로 전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에는 전주와 익산의 대교구와 그 산하에 20여 개의 지역 교구가 조직되었다.

넷째, 천도교 조직은 1919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천도교는 3.1운동을 일제강점 직후부터 준비하였다. 각 지역의 주요 교역자들을 초치하여 49 기도 등 정신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는 곧 지역에서 3.1운동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북지역도 주요 교역자들이 중아에서 시행하였던 49일 기도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에서도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교구를 비롯하여 10여 개 교구에서 3.1운동을 준비하고 교인들을 동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조직적인 만세시위를 전개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후 예비검속을 당함에

따라 타 지역보다 활발한 만세시위를 전개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하는데 중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전북지역 동학, 천도교는 근대사회의 변혁을 이끌었던 동학혁명의 진원지로서, 그리고 중심무대로써 그 역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3.1운동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전북지역이라는 넓은 지역을 다루다보니 ‘수박 겉핥기’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곁들여져야 하는데, 부족한 시간과 적지 않은 원고량,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완성된 원고를 마련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 각 지역별, 인물별로 연구를 통해 보완해낼 것을 약속드린다.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토론문

동학역사문화연구소 부소장 조 광 환

먼저 성주현 박사의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이란 논문을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천도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천도교가 걸어온 길에 대해 대해서는 문외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실제적 모습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3.1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천도교의 구체적 활동 사항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기존 연구 자료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이란 논문을 정리해주신 성주현 박사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몇 가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백산대회’라는 용어가 과연 적합한지?

고부기포, 삼례기포, 백산기포라는 용어는 전봉준 공초 등 각종 사료에 나오는데 ‘백산대회’라는 용어는 언급이 없습니다. ‘백산기포’나 ‘백산봉기’가 아닌 ‘백산대회’라고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발표하신 본문에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참여한 동학지도자들은 1894년 1월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전개되자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894년 1월 들어 동학에 대한 지목이 극심해지자 관내 接의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부에서 전봉준이 기포하자 전주 관내 두령인 서영도, 유재봉, 최대봉, 임상순 등 수십 명이 고부의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과 서로 연락을 하는 한편 함께 기포하였다. 이어 3월 고부 백산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도 참여하였다. 익산지역 동학지도자들도 백산대회에 참여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는 발제자도 언급한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고부봉기가 고부지역 농민들만의 봉기가 아닌 전주지역의 동학지도자들과 상호 호응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부농민봉기가

단순히 고부군수 조병갑에 대한 일시적 감정의 폭발로 일어난 민란이 아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거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봉기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고부라는 일개지역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발통문에 결의한 내용과 같이 고부에서 일어나 전주를 점령하고 곧바로 한양으로 올라가 중앙정권을 쳐서 잘못된 정치의 근본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료로 송재섭이 1954년에 쓴 것으로 전해지는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이하 실기)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동안 학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김용섭(金容燮) 씨가《한국근대농업사 연구 Ⅲ》(2001. 7. 지식산업사)란 저서에 사발통문 관련부분을 일부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이 문건의 입수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자는 진암(進菴) 송재섭(1889~1955)이 단기 4287년(1954)에 펜으로 쓴 필사본인데 필자는 박영재(朴英宰) 교수를 통해 박명도(朴明道) 선생(父 朴來源, 祖父 朴寅浩)택에 소장되어 있는 원고본의 복사본을 기증받아 보고 있다”

위의 『실기』를 저술한 송재섭은 사발통문 서명자 20명 중 한분인 송주성의 차남이다. 그는 1889년생으로 그의 나이 35세 때인 1924년에 송주성이 사망하였고 그 후 1932년에 만주로 이주하여 1945년 8. 15 해방 후 귀국하여 고부 강고리로 되돌아와 천도교 고부교구 활동을 하다가 195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료에 의하면 전봉준이 고부농민봉기 이전에 미리 최시형에게 고지를 했으며 호서에서의 내용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전봉준은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당시 고부와 행정구역이 다른 태인의 최경선, 금구의 김덕명, 남원의 김개남, 무장의 손화중, 부안의 김낙철 등에게 일일이 격문을 보내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의 진중(陣中) 수행원임을 밝힌 김흥섭(1965년 10월28일 92세를 일기로 사망)의 회고기록을 보면

“ 읍접주들(邑接主)과 기병모의(起兵謀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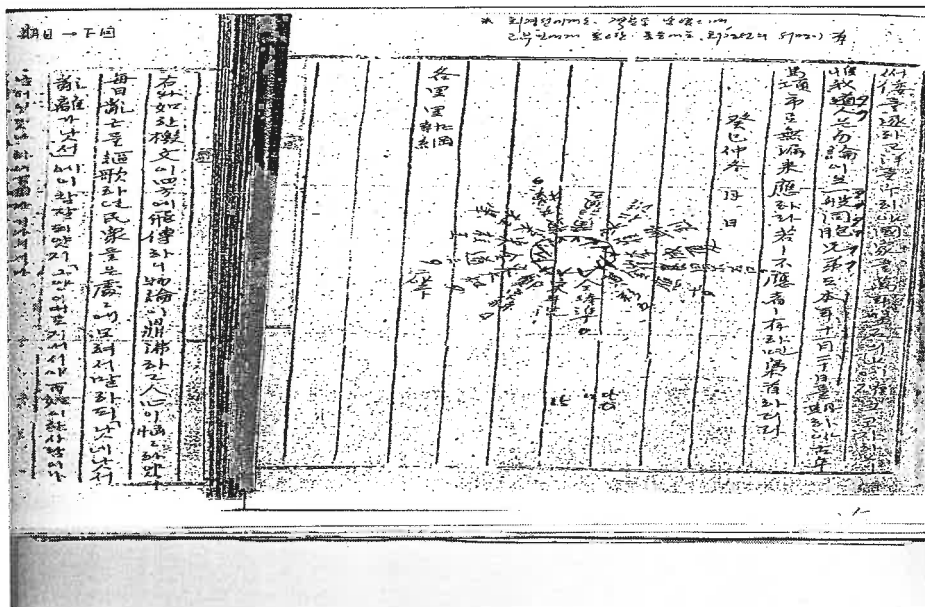
김옹이 전봉준 장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893년 12월10일 무장군 동음치당상리(현 고창읍 공음면)의 송문수(宋問洙)씨택에서 전 장군이 잠시 몸을 피하면서 동학교 접주 손화중, 김성칠(金聲七), 정백현(鄭伯賢), 송문수(宋問洙) 등 네 사람과 자리를 같이하고 전라감사 김문현의 폭정에 일어날 것을 약속

기병(起兵)을 모의할 때였다.

그 후 1894년 2월19일엔 당시 동음면 신촌리(冬音面 新村理) 의 김옹집에 다시 모여 행동준비를 구체화하였는데 여기모인 사람은 전기 손, 김, 정, 송 씨 외에 김개남, 서인주(徐仁周), 임천서(林天瑞), 김덕명, 강경중(姜敬重), 김영달(金永達), 고영숙(高詠淑), 최재형(崔載衡)들이었다. 김옹의 부친 김성철 접주는 그 준비공작금으로 쌀50섬을 내놓았다.”

〈1965년 11월5일자 중앙일보〉

여기서도 전봉준은 서인주와 손화중, 김개남, 정백현, 김덕명, 강경중, 고영숙 등 훗날 백산봉기에서 농민군 지도부가 되는 납접의 유수한 수령들과 고부봉기 이전부터 혁명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발발한지 3일 만에 전봉준이 무장으로 달려가 앞에 거론한 인물들과 거사논의를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봉기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지방 민란으로 보던 종래의 시각도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는?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에 실려 있는 사발통문

3. 임실군 운암면 운암초등학교 앞에 천도교와 임실지역 동학군 후손들에 의해 임실지역의 東學農民革命, 3.1만세운동, 무인멸왜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가 1983년 동시에 건립되었다. 중앙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좌우에는 기미삼일운동기념비와 무인멸왜운동기념비가 나란히 서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었던 최승우, 김영원, 한영태 등이 임실 일대에서 봉기를 일으켜 남원에 나아가 활동하였습니다. 갑오년 11월 남원성 전투에서 패전하자 이들은 임실로 돌아와 순창 회문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후 이들은 3.1운동과 무인멸왜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東學農民革命 이후 농민군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며, 東學農民革命과 3.1운동의 역사적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발제자가 조사할 때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가 전북지역에 또 있는지?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창립 준비 취지문

‘동학, 시대의 바람으로 서다’

우리는 오늘 동학의 역사와 사상이 시대의 새바람으로 불어 갈 수 있도록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중건하려는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동학혁명은 동학의 창도 이래 단 한 순간도 쉬거나 멈춘 적이 없는 개혁 대장정의 일환이었습니다. 1894년의 동학혁명 이전에 이미 수많은 동학도들이 교조의 신원과 척왜양창의를 대의로 한 조선의 자주적인 근대화를 지향하였고, 동학혁명의 대접전이 패배로 돌아간 1895년 이후에도 동학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보국안민과 포덕천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성과 속에서 천도교단은 “동학혁명은 ‘동학비도’가 일으킨 ‘동학란’”이라고 여전히 탄압받던 일제 강점기의 암흑한 시기에도 혁명의 의의를 현창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학혁명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1960년대 동학란이 동학혁명으로 명칭의 복권은 이루어졌으나, 동학농민군의 신원은 그로부터 다시 반 세기를 지나야 했고,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졌으나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동학혁명 정신의 현창을 위한 사업은 여전히 아쉽기만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동학혁명 100주년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기념사업회가 설립되고 기념사업과 행사들이 활화산처럼 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열풍은 오히려 동학의 지역적 고립을 구조화하는 계기를 불러오고, 동학혁명의 명예회복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동학의 근본정신을 소외시킬 위험성에 노출되었습니다.

오늘날 동학혁명을 계승하는 기념사업과 행사는 풍요 속의 빈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의의 현창과 지역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 사이에 끼여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변화와 세속화의 위협에 매몰되고 있다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동학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목소리는 분산되어 고립되고, 시대의 흐름은 여전히 서구화 중심성의 대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동학혁명 100주년 이후 20년 동안, 길게는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동학혁명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과 행사들이 이 시대와 사회에 근본 바탕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역적 / 과거 지향적으로 흘러온 까닭입니다. 이러한 자성을 기반으로 우리는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 발족을 준비하면서, 동학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추진함으로써 동학이 다시금 당당히 새 시대의 바람으로 불어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학의 전국화는 동학혁명의 철학적·공간적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며, 세계화는

동학혁명의 사상적·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미래화는 동학혁명의 개벽적·시간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니, 이로써 동학은 영원히 죽지 않은 개벽의 동력으로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게 될 것입니다. 동학이라는 이름을 천도교와 더불어 말하는 것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문명화와 제도화를 향하여 달려왔던 천도교가 용시용활의 기운을 일으키며 한 차원 더 높고 넓은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립 분산된 각지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지역적 과제들을 모두 안으며, 동학 계승 사업의 관변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의 주체와 연대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동학, 시대의 바람으로 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땅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바람이 부는 까닭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 황토현을 비롯한 고창, 백산, 장흥, 만경들녘, 만석보, 우금치, 자작고개, 보은, 청산, 전국 방방곡곡 고개 마루, 들판, 산골짜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와 서울,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땅 어딘들 바람이 불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까닭은 그 모든 땅과 시간에 동학농민군의 숨결(生命)이 함께하기 때문이요, 동학농민군의 새 세상에의 바람(願)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학이 시대의 바람으로 선다는 것은 그 바람(願)을 안고 그 바람(風)이 되어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달려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동학농민군의 성령은 영원히 오늘의 우리를 통하여 출세하며 살아 계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소통은 바람처럼 이루어집니다. 내 자리를 비워주는 데서 시작되는 바람처럼 스스로를 그에게 내어주는 순간 그는 바람이 되어 내게로 불어옵니다.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동학을 기념하는 모든 단체와 동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학적 이상에 부합하는 모든 대안들을 향해 온몸을 내어 주는 것으로서 그 본령을 삼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지사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라고 선언하신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경지를 실천하는 것이니, 한울님과 스승님이 동학을 창도한 그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언하는 동학 바람의 모태입니다.

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그리하여, 시대의 바람으로 불어 다닐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동학 사업은 동학 속에만 머물지 않고 동학 밖의 세계와 연대하고 교류함으로써 그 색깔을 더욱 곱게 또 선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학이 제 한 몸 세우기에 급급하여 안으로 매몰됨으로써 더욱 위축되어 온 것이 지난 20년의 세월이었다면, 이제 당당히 이웃을 바로세우고, 세상을 도움으로써 동학의 본성이 마음껏 드러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니, 이것이 세상 밖으로 불어 가는 동학의 바람입니다.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창립 준비 취지문

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창립 직후에 첫 번째 사업으로 동학혁명120주년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갑오년인 2014 동학혁명120주년 한 해 동안, 지난 100주년 때의 성과를 재현하되 그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동학혁명 계승의 역사적 차원을 한 단계 고양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갈 것입니다. 우리만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의 모든 동학 후손과 후예들이 주역이 되도록 기반이 되고 지렛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동학의 후손과 후학과 후예임을 자처하는 모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동학의 시간을 거슬러 가면 동학 창도와 조우하고, 시간을 따라 내려오면 천도교라는 동학의 근대적 지평과 만납니다. 왼쪽으로 팔을 뻗으면 생명평화운동이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와 더불어 손을 내밀고, 오른쪽으로 손을 내밀면 남북의 평화통일과 종교간 소통이 인간 소외의 껍질을 부수며 어깨를 감싸 줍니다. 이러한 동학혁명의 총체적 의의에 온전히 눈뜨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동서남북 바람이 이르는 곳 어딘들 동학의 땅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바람처럼 내 자리를 내어 주고, 서울을 딛고 전국으로 나아가고 후천개벽의 새 세계를 온 세상에 펼치는 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임을 잊지 맙시다.

한울님 스승님, 동학농민군의 성령이시여! 오늘, 동학의 후손과 후학과 후예들이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 발족을 위한 깃발을 높이 올려 동학의 전국화와 세계화와 미래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바람처럼 달려가고자 하오니 감응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울님과 스승님 그리고 동학 선열들의 마음에 부합하고, 공을 이루고, 뜻을 펼치는 길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경계하고 공부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오니, 후천개벽의 새 세상의 길을 환히 밝혀 주옵소서!

포덕 154(2013)년 5월 11일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

천도교중앙총부와 (사)동학민족통일회는 5월 11일 전북 정읍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앞에서 제119주년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식 및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하고 동학혁명의 "전국화, 미래화, 세계화"를 기치로 동학이 다시금 이 시대의 바람으로 서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기념사업회 창립 준비의 뜻을 담은 취지문을 발표했다. 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오는 9월 18일(동학혁명재기포일)에 즈음해서 창립대회를 열고 내년으로 다가온 동학혁명120주년 행사 기획 및 동학혁명 정신의 계승과 확산 등을 위한 상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